

ECONOMIC OUTLOOK VOL.15-2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2005. 6.

한국경제연구원

집 필 진

선임연구위원	허 찬 국
연구위원	배 상 근
연구위원	이 태 규
선임연구위원	김 창 배

< 제 목 차 례 >

요약	v
제 I 장 국내경제동향	1
1. 국내총생산	3
2. 생산	5
3. 국내수요	8
4. 경기	10
5. 고용	12
6. 대외거래	14
7. 물가 및 임금	19
8. 통화 · 금융	23
9. 환율	35
제 II 장 해외경제동향 및 전망	37
1. 주요국 경제	39
2. 국제 환율	47
3. 국제원자재 가격	50
제 III 장 국내경제전망	53
제 IV 장 경제현안과 정책과제	61
1. 일본식 장기불황을 막기 위한 투자활성화	63
2. 거시경제 활력제고와 경제상황 안정화	71
<부록> 주요 경제통계	81

< 표 차례 >

<표 I-1> 제조업 생산	6
<표 I-2> 서비스업 활동(업종별)	7
<표 I-3> 소비 및 투자	9
<표 I-4> 최근 고용지표	13
<표 I-5> 최근 수출입 및 무역수지	15
<표 I-6> 품목별 수출	16
<표 I-7> 지역별 수출	16
<표 I-8> 용도별 수입	17
<표 I-9> 최근 국제수지	18
<표 I-10> 최근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	20
<표 I-11> 상용종업원 월평균 임금(5인 이상 사업체)	22
<표 I-12> 주요 통화지표 추이	23
<표 I-13> 주요금리	25
<표 I-14> 주요 금융기관 수신 추이	27
<표 I-15> 기업 자금조달 추이	28
<표 I-16> 가계신용잔액 증감액	30
<표 I-17> 형태별·기관별 가계신용잔액 추이	31
<표 I-18> 은행의 가계대출	32
<표 I-19> 신용카드 이용실적 추이	33
<표 I-20> 주식시장 주요지표	34
<표 I-21> 원/달러 및 원/엔 환율	36
<표 II-1>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40
<표 II-2> 일본의 주요 경제지표	42
<표 II-3> EU의 주요 경제지표	44

〈표 II-4〉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추이	45
〈표 II-5〉 주요국의 경제성장 전망(%)	46
〈표 II-6〉 엔/달러 및 달러/유로 환율	48
〈표 II-7〉 유가 및 CRB 지수	51
〈표 III-1〉 물가와 환율 추세	57
〈표 III-2〉 2005년 국내경제전망	59
〈표 IV-1〉 최근 건설수주 추이	67
〈표 IV-2〉 재정집행 실적	72
〈표 IV-3〉 정부의 일자리 지원 실적	73
〈표 IV-4〉 2004년 및 2005년 재정지출 규모 비교	73

<그림 차례>

〈그림 I-1〉 국내총생산과 지출항목별 기여도	3
〈그림 I-2〉 재고변동과 통계상불일치를 제외한 국내총생산	4
〈그림 I-3〉 제조업 생산 및 평균가동률	5
〈그림 I-4〉 서비스업 활동	6
〈그림 I-5〉 소비 및 투자	9
〈그림 I-6〉 생산·재고 순환과 경기종합지수	10
〈그림 I-7〉 주요 경제심리지수	11
〈그림 I-8〉 주요 고용지표	12
〈그림 I-9〉 수출입 증가율과 무역수지	14
〈그림 I-10〉 경상수지와 자본수지	18
〈그림 I-11〉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	19
〈그림 I-12〉 수입물가	21
〈그림 I-13〉 상용종업원 월평균 임금(5인 이상 사업체)	22

〈그림 I-14〉 주요금리 추이	24
〈그림 I-15〉 장단기 금리 차와 신용스프레드 추이.....	25
〈그림 I-16〉 가계신용잔액 증감액 추이(전기말 대비).....	29
〈그림 I-17〉 주가지수 추이	34
〈그림 I-18〉 원/달러 및 원/엔 환율 추이	36
〈그림 II-1〉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40
〈그림 II-2〉 일본의 주요 경제지표	42
〈그림 II-3〉 EU의 주요 경제지표	43
〈그림 II-4〉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추이	45
〈그림 II-5〉 엔/달러 및 달러/유로 환율 추이	48
〈그림 II-6〉 국제원자재 가격	51
〈그림 III-1〉 반기별 내수와 수출의 성장 기여도	55
〈그림 IV-1〉 건설, 설비, 무형고정자산 투자추세	65

I. 국내경제동향

■ 내수의 점진적인 회복세에 힘입어 경기가 완만한 회복국면을 보임

- 올 1분기 성장률(2.7%)이 지난해 4분기(3.3%)에 비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소비, 투자 등 내수 항목의 기여도(%p)는 오히려 상승

· 재고를 제외하면 1분기 성장률이 지난해 4분기보다 높음

주요 지출항목별 기여도

(%p)

	최종소비	고정투자	수출	재고	GDP
2004 4/4	0.5	-0.4	4.6	2.6	3.3
2005 1/4	1.1	0.0	4.0	-0.2	2.7

- 2분기중에도 내수회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수출증가율 둔화추세가 약화

- 4월 도소매판매의 증가율이 상승하고 건설투자의 감소 폭도 축소
- 4월 서비스업 활동의 증가세가 1분기보다 확대
- 4월중에는 수출증가율 둔화로 제조업생산과 설비투자가 부진하였으나 5월 수출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회복함으로써 제조업생산과 설비투자도 회복될 것으로 추정됨

■ 물가는 국제유가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원화절상의 영향으로 하향안정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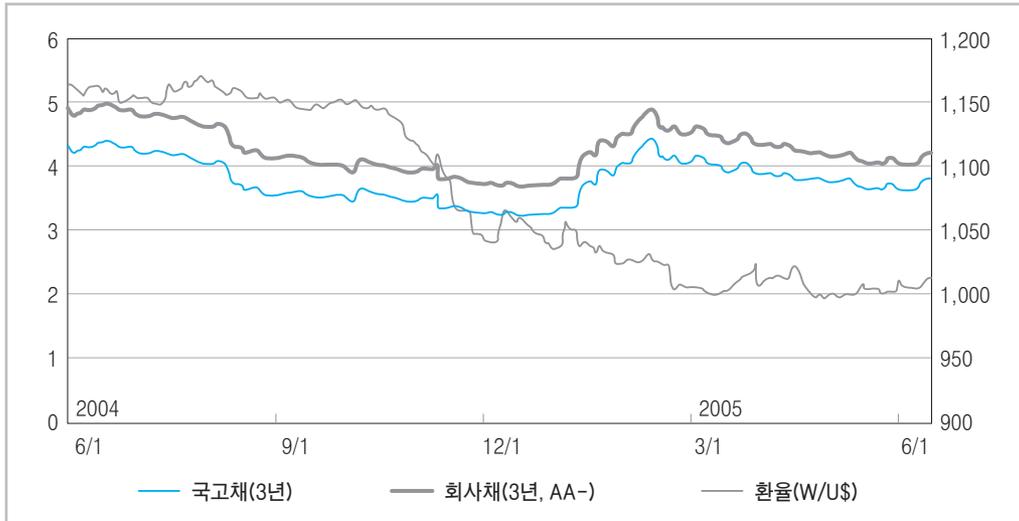
- 소비자물가: 3.4%('04 4분기) → 3.2%('05 1분기) → 3.1%(4~5월)

■ 경상수지는 수출증가율 둔화로 흑자규모가 축소

- 경상수지(억 달러) : 38.7(1월) → 9.7(2월) → 11.1(3월) → -9.1(4월)

- 시장금리는 연초에 비해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되면서 2월 중순 이후 완만히 하락하고 있으며 원/달러 환율은 달러강세 기조를 반영하여 하락추세가 다소 완화된 모습

주요 지출항목별 기여도



II. 해외경제전망

■ 주요국 경제전망

— 유로지역을 제외한 주요국들은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

- 미국: 견조한 성장세 지속
- 일본: 조정국면을 벗어나 회복국면을 지속
- 중국: 8%대의 높은 성장세를 지속
- 유로 : 저성장세 지속

주요국의 경제성장 전망

(%)

	2003	2004	2005		
			IMF	OECD	World Bank
세계성장률(%)	3.9	5.1	4.3	2.6	3.1
미국(%)	3.0	4.4	3.6	3.6	3.9
일본(%)	2.5	2.6	0.8	1.5	0.8
유로(%)	0.5	2.0	1.6	1.2	1.5
중국(%)	9.3	9.5	8.5		

주: 1) 발표시점은 IMF는 2005년 4월, World Bank는 2005년 4월, OECD는 2005년 5월

2) OECD 세계성장률 전망은 OECD회원국 성장률

■ 환율전망

- 하반기중 달러화는 엔화에 대해서는 약세(엔/달러 환율 하락)를 보이겠지만 유로화에 대해서는 강세(달러/유로 환율 하락)를 지속할 전망

- 엔/달러 환율 하락 요인: 달러화의 구조적 약세요인인 쌍둥이 적자 지속, 일본경제의 회복에 따른 양국간 성장률 격차 축소
- 달러/유로환율 하락요인: 유로존과 미국간 성장률 격차 확대, EU헌법 국민투표 부결 등으로 인한 유럽경제 통합에 대한 회의적 전망이 확산

■ 국제유가 전망

- 하반기중 다음과 같은 요인들로 인해 고유가 기조는 지속될 전망

- 중국 등 개도국들의 높은 수요 지속
- 산유국들의 공급능력 제한
- 계절적인 성수기 진입 등

Ⅲ. 국내경제전망

■ 성장률

- 민간소비 등 내수부문이 회복되고 수출증가세 둔화가 예상보다 더디게 나타나면서 성장률은 하반기 5.0%, 연간으로는 4.1%를 기록할 전망
- 고유가 등 세계경제 불안요인에도 불구하고 5월까지 실적으로 보면 수출증가세 둔화가 예상보다 더디게 나타나고 있어 올해 성장세에 대한 기여가 더 긍정적인 것으로 기대됨
- 소비개선은 그동안 내수부진으로 특히 불황을 겪었던 서비스 부문 상황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건설 및 운송장비 부문의 약세로 투자증가세가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임

■ 소비자물가

- 전반적인 총수요압력이 완만한 가운데 환율절상의 영향으로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2%의 안정세가 예상됨
- 큰 폭으로 절상된 원화가치가 현재의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 환율은 고유가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세를 덜어주는 역할을 하며 국내물가를 안정시키는 긍정적 효과를 할 것으로 기대됨

■ 경상수지

- 수입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른 수출증가세 둔화에 기인하여 경상수지 흑자는 상반기 102억 달러에서 하반기에는 86억 달러로 축소될 전망
- 對중국수출의 호조 지속에 힘입어 수출증가세가 예상보다 길게 계속되고 있으나 위안화 절상 가능성 등 대외적 불안요인으로 수출증가세가 점차 둔화될 전망

- 그러나 고유가 등 가격요인과 소비회복에 따른 수입증가 등으로 수입증가율은 하반기에도 두 자릿수를 보일 전망

■ 시장금리(3년 만기 회사채수익률 기준)

-상반기 4.3%에서 하반기 4.8%로 점진적으로 오를 전망

- 내수회복으로 하반기 자금수요가 점차 증가하며 금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원화환율

-달러화 약세의 기초적 추세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원화환율은 완만한 절상추세를 보일 전망

2005년 국내경제전망

(전년동기비, %, 억 달러)

	2004년	2005년						
	연간	1/4	2/4	3/4	4/4	상반	하반	연간
국내총생산	4.6	2.7	3.8	4.6	5.3	3.2	5.0	4.1
계절조정, 전분기비, %	4.6	0.4	1.7	1.6	1.6	1.7	3.2	4.1
민간소비	-0.5	1.4	3.2	4.2	5.1	2.3	4.7	3.5
설비투자	3.8	3.1	3.5	5.9	7.4	3.4	6.7	5.0
건설투자	1.1	-2.9	-0.4	2.2	4.1	-1.4	3.2	1.1
무형고정자산투자	-1.2	4.8	4.5	5.9	7.1	4.6	6.6	5.7
재화 및 용역 수출	19.7	7.4	6.5	4.9	4.1	6.9	4.5	5.7
재화 및 용역 수입	13.8	5.2	4.9	4.7	3.4	5.1	4.0	4.5
생산자물가	6.1	3.3	2.9	2.6	2.6	3.1	2.6	2.9
소비자물가	3.6	3.1	3.2	3.1	3.2	3.2	3.2	3.2
경상수지	276.1	59.5	42.8	42.5	43.0	102.3	85.5	187.9
상품수지	381.6	92.9	86.7	76.4	65.9	179.6	142.3	321.9
수출	2,577.5	681.8	699.7	680.6	725.3	1,381.5	1,406.0	2,787.5
증가율(%)	30.6	12.9	8.5	7.6	4.2	10.6	5.8	8.1
수입	2,195.8	588.9	613.0	604.3	659.4	1,201.9	1,263.7	2,465.6
증가율(%)	25.2	13.8	13.4	13.2	9.2	13.6	11.1	12.3
서비스, 소득 & 이전	-105.5	-33.4	-43.9	-33.8	-22.9	-77.3	-56.7	-134.0
원/달러환율(평균)	1,146.1	1,022.6	1,004.9	1,001.8	998.4	1,013.7	1,000.1	1,006.9
회사채수익률(연%, 평균)	4.7	4.4	4.2	4.6	4.9	4.3	4.8	4.6
실업률(%)	3.5	3.9	3.5	3.5	3.4	3.7	3.5	3.6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분기모형

IV. 경제현안 및 정책과제

1. 일본식 장기불황을 막기 위한 투자활성화

- 일본식 장기불황은 한국과 일본의 경제구조 차이로 볼 때 가능성이 낮음
 - 일본 장기불황의 거시경제 현상적 특징은 비중이 높은 내수의 장기침체와 공공지출 급증으로 인한 국가재정의 극심한 악화임
 - 수출비중이 높은 경제구조를 가진 한국의 경우 수출호조에 의한 경기부양효과가 일본보다 커 내수부진에 기인한 성장정체의 가능성은 낮음
- 하지만 내수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외여건이 크게 악화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장기불황 진입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함
 - 외환위기 이후 내수부진으로 우리의 재정상황이 점차 악화됨에 따라 일본의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고조
- 따라서 내수회복이 장기불황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확실한 예방책
- 향후 괄목한 만한 투자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도시 건설, 대규모 워낙시설 건설 등과 같은 서비스업분야와 관련된 대형 투자가 필요하며 이는 사업추진 능력이 있는 국내 대기업이나 대형 외자유치를 통해서만 가능할 것임
- 따라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기업활동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및 시각에 변화가 선행되어야 함
 - 첫째, 기업이 영위하고 하는 사업 분야에 대한 각종 진입규제 완화
 - 현실적으로 기존 기업들은 새로운 사업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후보들임. 업종다양화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스며든 정부의 기업정책의 변화가 필요

- 둘째, 모든 기업간의 필요 자원과 경영전문성 이동에 대한 제약 완화

- 대기업들에 대한 대표적인 제약이 출자총액한도인데 대부분 기업간의 출자에는 경영권 관련 효과와 투자증대 효과가 공존하는 것이 사실. 출자를 이용한 경영권 확장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이 정책의 부작용은 투자증대 효과를 아울러 확실히 차단하는 것이 될 것임

2. 거시경제 활력제고와 경제상황 안정화

(1) 정책 일관성 확보 및 유효성 증진

- 정부는 경제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해서 분명한 정책기조를 수립한 후 정책기조와 실제정책이 일치하도록 한 후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

- 정부의 정책혼선을 배제하고 정책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당정간의 충분한 토론과 사전적인 정책조정을 거친 후 정부의 공식입장을 시행부처를 통해 국민에게 전달

(2) 추경편성과 감세도 고려할 필요

- 재정지출정책은 중기재정적 시각에서 유연하게 운영하고, 하반기에도 적자재정을 감수하여 추경편성을 포함한 확장적 재정지출 지속

- 하반기 경기회복의 가시화를 위해서는 재정의 상반기 조기지출에 따른 하반기 재원 부족을 보완할 추경예산 편성도 고려하고 추경편성시 내역은 성장잠재력 확충 등에 도움을 주는 분야에 중점 편성

- 조세정책의 경우, 감세정책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가처분소득 증가를 통해 소비회복 도모

- 작년엔 폐지되지 않은 특소세 대상품목과 소득세율의 인하 폭을 각각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범위를 확대하고 기한도 추가로 연장할 필요

(3) 저금리기조 유지

■ 통화정책의 경우에도, 총수요에 의한 물가상승압력이 가시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저금리기조를 유지할 필요

- 만약 하반기에 경기가 보다 악화되고 원화절상속도가 빠를 경우 추가적인 금리인하도 고려

(4) 노사간 대·중소기업간 동반자적 협력 필요

■ 정부와 정치권은 노사문제 등 이해집단의 갈등 해소에 있어 불필요한 개입이나 소모적인 정치적 쟁점화를 지양하고, 노사정의 동반자적 노력과 법치주의에 기초한 해결 도모

■ 기업간 양극화 해소를 위해 대기업-중소기업간 상생관계를 증진할 필요

- 대기업은 협력회사의 설비투자 및 기술개발 지원, 임직원 양성 및 경영개선 지원 등에 노력하고 중소협력회사는 양질의 제품을 안정적으로 납품하는 등 대기업-협력기업간 '윈-윈(Win-Win) 전략' 추진

-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성과공유제도 구축을 통한 시너지 창출이 바람직함

(5) 세금보다 공급증대를 통한 부동산시장 안정

■ 부동산가격 급등에 대응한 조세정책은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채 조세논리에 맞지 않는 세제만 만드는 부작용 발생

■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거래활성화를 통한 시장의 가격안정화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고 주택공급을 대폭적으로 확대하여 수급불균형 요인을 완화해야 함

- 교육, 교통, 환경 등 주거여건의 개선 등을 통해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수요를

분산하는 수요조절 정책을 병행

제 I 장

국내경제동향

1. 국내총생산
2. 생산
3. 국내수요
4. 경기
5. 고용
6. 대외거래
7. 물가 및 임금
8. 통화·금융
9. 환율

1. 국내총생산

(1) 1분기 성장을 둔화는 재고변동에 기인

■ 2005년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은 전년동기비 2.7% 증가를 기록하며 지난해 4분기(3.3%) 대비 0.5%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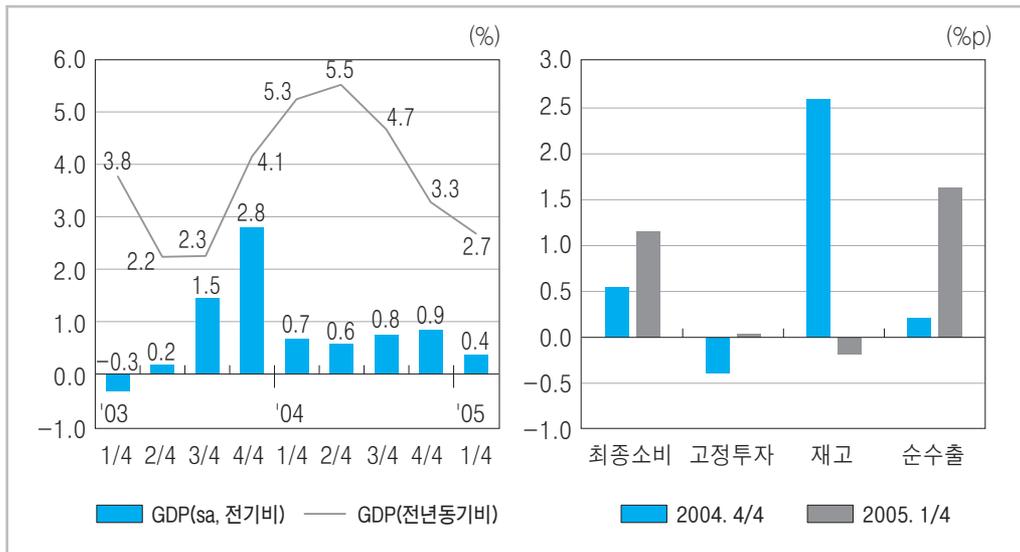
- 계절조정 실질 국내총생산도 전기 대비 0.4% 증가해 전분기(0.9%)에 비해 둔화

■ 이는 재고변동의 불규칙 요인에 기인

- 모든 지출항목의 기여도는 지난해 4분기에 비해 상승했으나 재고의 기여로만 급락

•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담배 값 인상과 관련되어 나타난 담배생산 변동을 주요 원인으로 지적

〈그림 1 -1〉 국내총생산과 지출항목별 기여도



자료: 한국은행

■ 1분기 실질 GDP성장률의 실적치와 본원의 전망치를 비교해 보면

- 국내총생산 증가율의 본원 전망치는 실적치와 근접했으나 지출항목별로는 다음과 같은 차이를 보였음

- 민간소비는 실적치가 본원 전망치에 비해 강한 회복세를 보였으며 설비 및 건설 투자는 전망치에 비해 회복세가 약하게 나타남
- 수출의 경우, 예상보다 둔화추세가 크지 않게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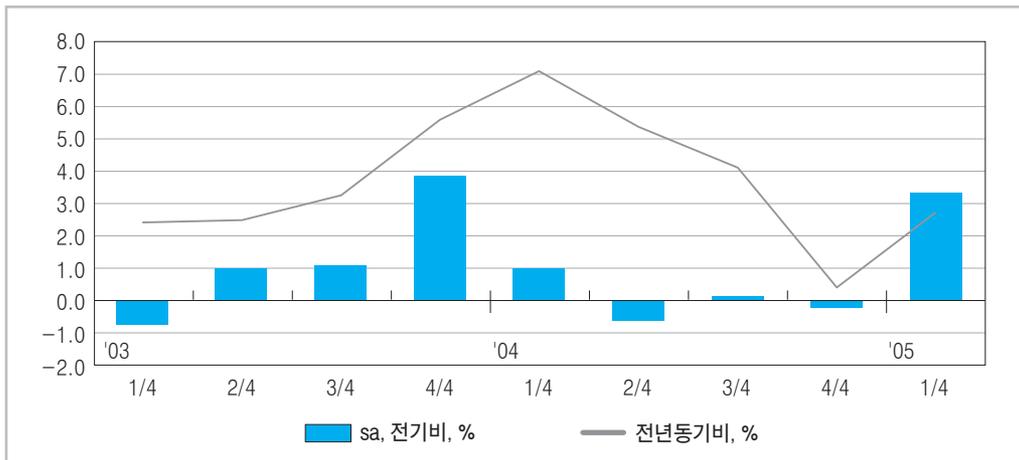
■ 전반적으로 경제활동 정도가 예상보다 활발했음을 시사함

- 투자추세의 혼미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주도하는 내수회복세가 앞으로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을 가능하게 함

- 특히 재고변동과 같은 일회성 요인의 재연이 예상되지 않기 때문에 회복추세 유지에 긍정적

- 참고로 재고변동과 통계상 불일치를 제외한 상태에서 국내총생산을 계산할 경우, 1분기 성장률이 4분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1-2〉 재고변동과 통계상 불일치를 제외한 국내총생산



2. 생산

(1) 제조업 생산증가세 둔화, 서비스업은 증가세 확대

■ 제조업 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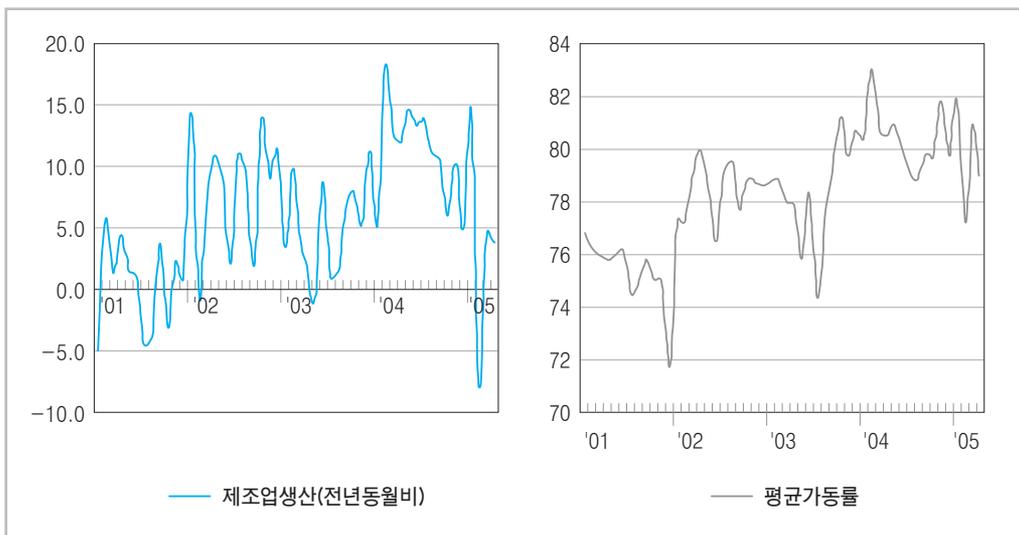
- 제조업 생산증가율은 지난해 4분기 7.0%에서 올 1분기 3.5%로 둔화된 데 이어 4월에도 3.5%에 그침

- 내수부문의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수출증가율이 둔화된 데 기인
- 업종별로는 자동차생산이 호조를 지속한 반면 반도체와 영상음향통신의 생산증가세는 둔화되고 섬유제품과 음식료품 등 경공업의 생산은 감소세 확대

- 제조업 평균가동률도 올 1분기 80.0%, 4월 78.9%를 기록, 지난해 4분기(80.4%)보다 하락

〈그림 1-3〉 제조업 생산 및 평균가동률

(%)



자료: 통계청

〈표 1-1〉 제조업 생산

(전년동기비, %)

	2004년		2005년				
	4/4	연간	1/4	1월	2월	3월	4월
제조업 생산	7.0	10.8	3.5	14.6	-8.0	4.6	3.5
반도체	22.5	41.0	15.5	20.9	10.2	15.6	13.8
자동차	12.6	13.3	14.5	45.6	-12.0	15.4	11.3
영상음향통신	11.1	19.6	9.9	27.1	-6.5	10.7	6.9
섬유제품	-6.6	-7.5	-9.1	15.6	-19.2	-8.1	-9.6
음식료품	1.7	2.1	-2.7	1.2	-11.4	-3.0	-3.8
평균가동률(%)	80.4	80.3	80.0	81.9	77.2	80.9	78.9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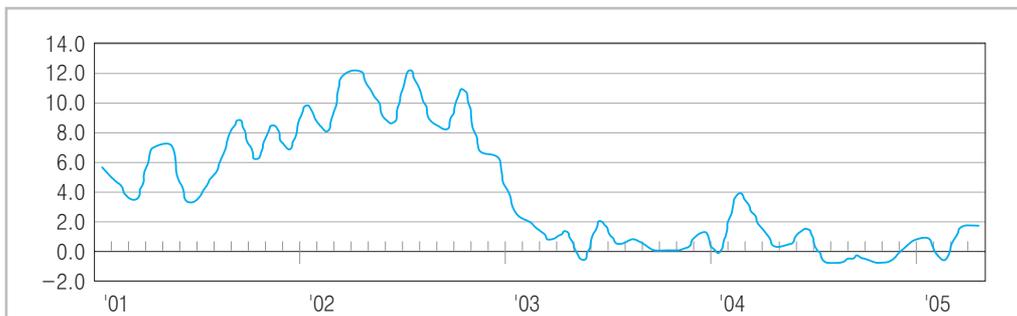
■ 서비스업 활동

- 서비스업 활동은 지난해 4분기 0.2% 감소에서 올 1분기에는 0.6% 증가로 반전되었으며 4월중에는 1.8%로 증가세가 확대

- 1분기중 감소세를 보였던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교육서비스업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이 4월중에는 증가세로 반전되었으며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은 증가세가 확대 혹은 유지됨

〈그림 1-4〉 서비스업 활동

(불변, 전년동월비, %)



자료: 통계청

〈표 1-2〉 서비스업 활동(업종별)

(불변, 전년동기비, %)

	2004년			2005년				
	3/4	4/4	연간	1/4	1월	2월	3월	4월
서비스업 활동지수	-0.5	-0.2	0.6	0.7	1.0	-0.5	1.6	1.8
도매 및 소매업	-1.5	-1.5	-1.2	-1.5	-3.3	-1.9	0.6	0.6
숙박 및 음식점업	-0.1	1.6	-0.7	-1.3	4.5	-9.8	1.8	0.9
운수업	6.5	3.1	6.2	3.1	5.3	0.4	3.5	4.0
통신업	2.6	3.8	5.8	4.6	5.2	1.2	7.7	4.3
금융 및 보험업	-2.9	-1.1	0.1	0.7	1.7	0.0	0.4	-0.5
부동산 및 기계장비임대업	-8.6	-4.5	-6.3	6.6	6.8	5.2	7.8	7.3
사업서비스업	1.9	0.7	1.9	1.8	5.4	-1.0	1.4	1.5
교육서비스업	-0.2	0.8	1.6	-0.4	-6.2	7.9	-2.0	1.2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의료업)	3.1	4.9	5.0	1.6	3.1	-1.1	2.9	4.1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3.4	-5.1	-3.3	-1.2	1.2	-4.8	-0.1	3.7
기타 공공 및 개인 서비스업	-1.1	-3.2	-1.1	0.4	1.3	-0.8	0.4	4.5

자료: 통계청

3. 국내수요

(1) 설비투자 회복세 약화, 소비와 건설투자는 회복

■ 소비

-도·소매판매는 지난해 8월 이후 지속된 감소세에서 벗어나 3월, 4월 연속 2개월 증가세

- 도·소매판매가 2개월 연속 증가한 것은 지난해 2~3월 이후 처음
- 자동차 및 연료판매는 감소세를 지속하였으나 도매업과 소매업이 올 들어 증가세로 반전
- 소매판매의 경우 대형할인점이 높은 증가세

■ 설비투자

-1분기 3.9% 증가했던 설비투자가 4월중에는 0.3% 감소하는 등 설비투자의 회복세가 약화

- 일반산업용기계, 자동차 등에 대한 투자 감소에 기인
- 기계류내수출하도 1분기에 이어 4월중에도 감소세 지속
- 선행지표인 기계수주(경상금액)도 감소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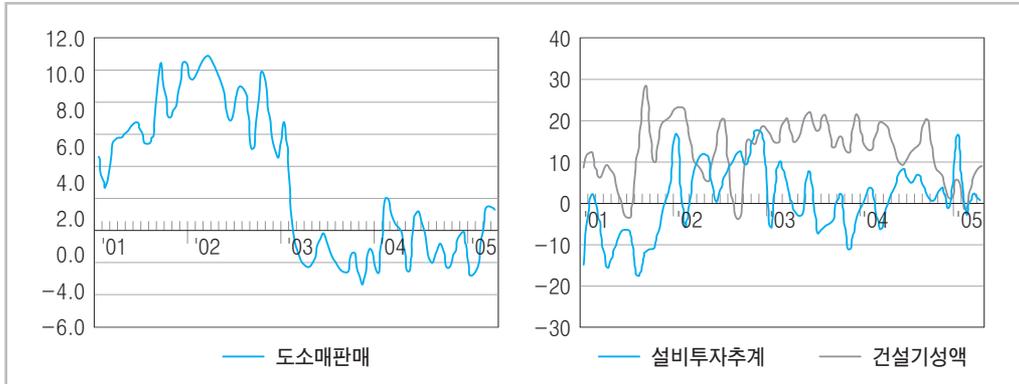
■ 건설투자

-지난해 4분기와 올 1분기 5% 미만으로 급격히 둔화된 건설투자 증가세가 4월중에는 8.3%로 상승

- 공공부문 발주공사는 여전히 감소하였으나 민간부문 발주공사는 증가
- 선행지표인 건설수주금액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모두 증가하여 1분기 24.8%, 4월에는 29.1% 증가

〈그림 1-5〉 소비 및 투자

(전년동월비, %)



자료: 통계청

〈표 1-3〉 소비 및 투자

(불변, 전년동기비, %)

	2004년			2005년			
	3/4	4/4	연간	1/4	2월	3월	4월
도소매 판매액지수	-1.1	-1.4	-0.9	-1.0	-1.6	1.4	1.2
자동차 및 연료	-1.4	-0.9	-3.0	-2.6	-9.1	0.6	-1.9
도매	-0.5	-1.1	0.2	-2.0	-4.4	0.4	0.9
소매	-1.7	-1.6	-1.4	1.2	6.2	3.6	3.2
백화점	-8.3	-5.9	-8.0	-3.1	-2.4	0.1	0.7
대형할인점	4.9	3.3	5.8	7.5	23.6	9.6	9.2
설비투자	3.8	0.1	1.4	3.9	-3.5	1.4	-0.3
기계류내수출하	0.4	-0.9	-1.3	-0.4	-10.7	1.1	-0.3
기계수주(경상금액)	-6.6	-5.4	6.8	-6.8	-18.7	-3.2	-10.3
건설기성(경상금액)	14.8	4.4	11.0	2.8	-2.4	5.3	8.3
공공	8.7	-5.3	5.3	-0.8	-0.9	-1.1	-0.2
민간	18.3	9.8	14.4	4.4	-2.9	8.1	12.7
건설수주	-20.8	28.8	-5.3	24.8	-20.0	72.7	29.1

자료: 통계청

4. 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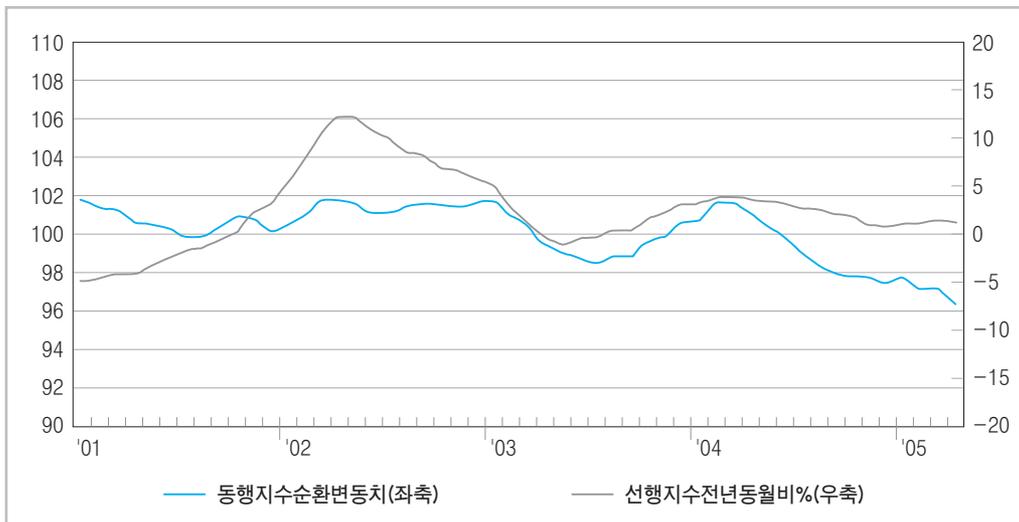
(1) 경기회복세 둔화

■ 경기

—동행지수순환변동치가 하락세를 지속하고 선행지수 전년동월비 증가율이 둔화

- 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 1분기에 이어 4월중에도 수출입액, 산업생산, 제조업가동률 등의 감소로 하락세 지속
- 선행지수 전년동월비 증가율은 올해 들어 3개월 연속 증가했으나 4월에는 전월에 비해 0.1%p 하락

<그림 1-6> 생산·재고 순환과 경기종합지수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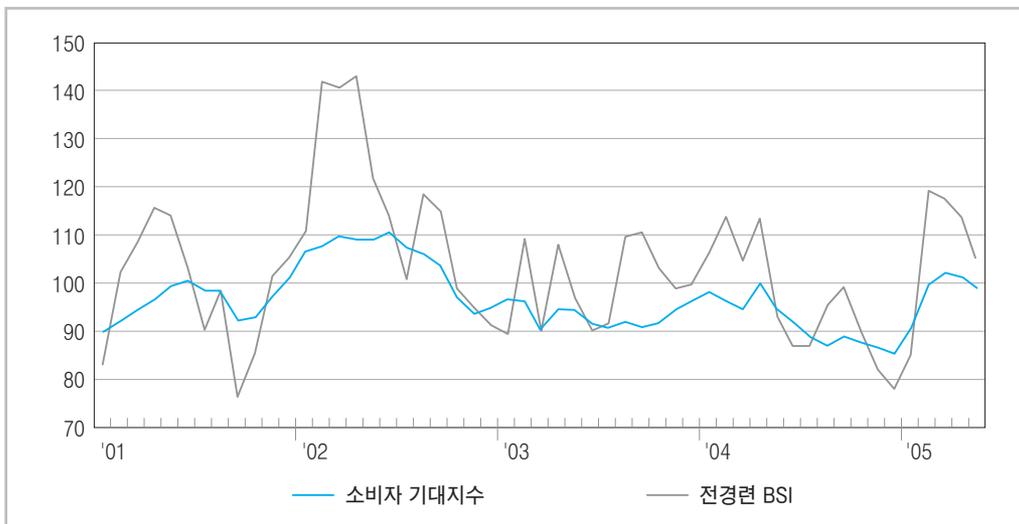
■ 경제심리지수

—경기회복세 둔화로 경제심리지수의 개선추세도 주춤

- 소비자기대지수가 3, 4월 연속 2개월 기준치를 상회하였으나 5월에는 기준치 이하로 하락
- 기업 체감경기를 보여주는 전경련BSI도 기준치 100을 연속 4개월 상회하고 있으나 2월(119.2)을 정점으로 하락

<그림 1-7> 주요 경제심리지수

(기준치=100.0)



주: 전경련BSI는 해당월에 조사한 다음달 업황에 대한 기업체들의 전망
 소비자기대지수는 해당월 대비 6개월 후 경기에 대한 소비자기대심리
 자료: 통계청, 전경련

5. 고용

(1) 고용 개선추세 주춤

■ 올 들어 지속되던 고용사정 개선추세가 4월중에는 소폭 둔화

- 경제활동참가율(계절조정)은 1분기에 이어 4월에도 61.9%로 정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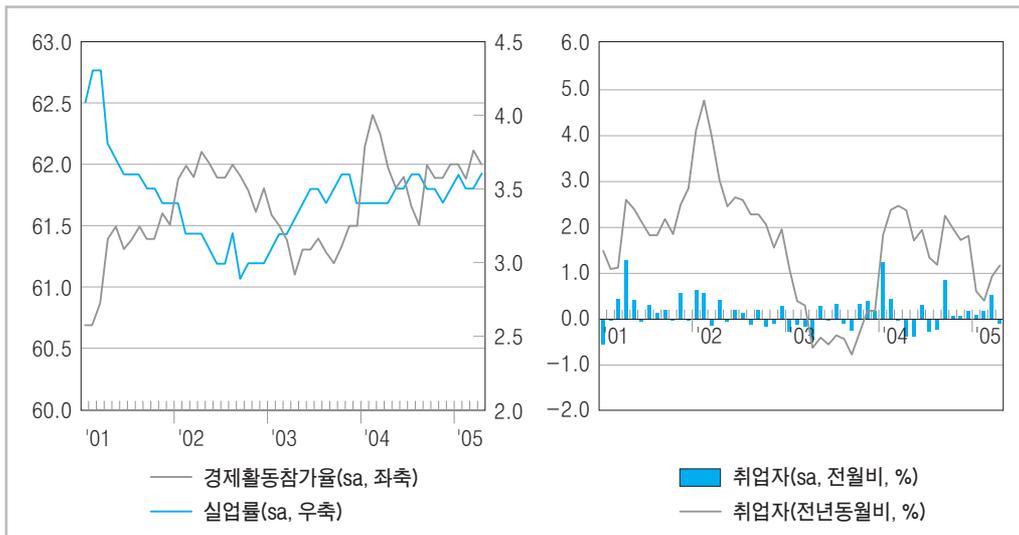
- 남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하락하고 여자는 증가

- 실업률(계절조정)이 1분기 평균 3.5%에서 4월에는 3.6%로 상승

- 취업자(계절조정)가 1분기 전기 대비 0.5% 증가에서 4월에는 0.1% 감소

- 하지만 전년동월비 증가율은 1.2% 증가

〈그림 1-8〉 주요 고용지표



자료: 통계청

〈표 1-4〉 최근 고용지표

(%)

	2004년		2005년				
	4/4	연간	1/4	1월	2월	3월	4월
경제활동참가율(계절조정)	61.9	61.7	61.9	62.0	62.0	62.0	61.9
남자	74.8	74.6	74.9	74.9	74.7	74.6	74.6
여자	49.8	49.6	49.8	49.8	50.0	50.1	50.0
실업률	3.4	3.5	3.9	3.9	4.0	3.9	3.6
계절조정	3.5	3.5	3.5	3.6	3.5	3.5	3.6
취업자증가율(전년동월비, %)	1.8	1.9	0.6	0.6	0.4	0.9	1.2
계절조정(전월비, %)	0.6	1.9	0.5	0.1	0.2	0.5	-0.1

자료: 통계청

6. 대외거래

(1) 수출증가세, 수입증가세보다 더 빠르게 둔화

■ 수출입(통관) 총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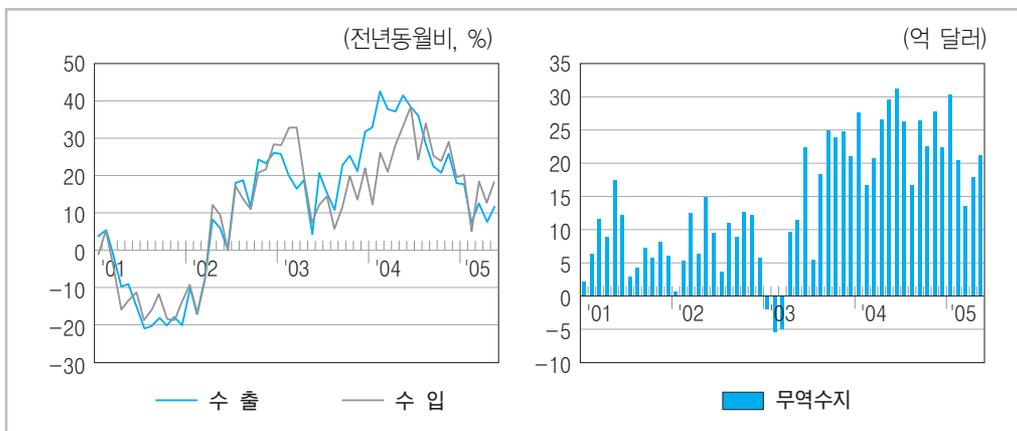
—수출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음

- 수출증가율은 올 1분기에는 10%대 그리고 4~5월중에는 한 자릿수대로 둔화
- 하지만 일평균 수출액이 4~5월중에도 1분기와 같은 10.1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수출호조는 지속되고 있음

—수입증가율은 국제유가의 상승에 따른 원유도입금액의 증가의 영향으로 둔화 폭이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남

—수출증가율 둔화가 수입증가율 둔화에 비해 빠르게 나타나면서 무역수지 흑자 폭은 소폭 축소

〈그림 1-9〉 수출입 증가율과 무역수지



자료: 산업자원부

〈표 1-5〉 최근 수출입 및 무역수지

	2004년		2005년				
	4/4	연간	1/4	2월	3월	4월	5월
수출금액(억 달러)	689.4	2,538.5	668.1	204.0	239.8	229.7	233.0
전년동기비, %	21.2	31.0	12.7	6.6	13.2	6.9	11.8
일평균(억 달러)	9.6	8.4	10.1	10.7	10.0	10.2	10.1
수입금액(억 달러)	616.9	2,244.6	603.8	183.5	226.3	211.8	211.9
전년동기비, %	23.6	25.5	14.4	5.0	18.3	12.5	18.4
일평균(억 달러)	8.6	7.4	9.1	9.7	9.4	9.4	9.2
무역수지(억 달러)	72.5	293.8	64.3	20.5	13.5	17.9	21.1

자료: 산업자원부

■ 주요품목의 수출(4~5월중)

-자동차는 브랜드 이미지 상승과 EU, ASEAN 지역 수출증가로 호조지속

-반도체는 주력제품인 D램의 가격하락으로 증가세 둔화

• 256M DDR, \$/개: ('05.1)4.04→(2)3.36→(3)2.60→(4)2.40→(5)2.32

-무선통신기기는 지난해 높은 수출증가율에 따른 통계적 반락 효과와 중저가 제품의 가격경쟁 심화 등으로 증가세 둔화

-컴퓨터는 고가분야 브랜드 인지도 취약, 저가분야 가격경쟁력 열세 및 해외생산 확대 등으로 감소세 지속

〈표 1-6〉 품목별 수출

(전년동기비, %)

	2004년		2005년				
	4/4	연간	1/4	2월	3월	4월	5.1~20
반도체	14.6	35.7	20.2	16.4	16.2	6.6	2.8
자동차	26.2	39.0	30.7	1.2	28.4	23.9	31.8
무선통신기기	27.1	40.3	13.2	5.0	16.4	10.6	-7.0
컴퓨터	-12.6	14.3	-25.5	-28.7	-27.2	-28.2	-28.1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79.8	38.1	10.8	104.4	17.1	3.3	82.2

자료: KOTIS

■ 지역별 수출

- 지역별 수출(4~5월중)은 중국, 일본, ASEAN, 유럽 등에서 두 자리 증가율의 호조를 보였으나 미국은 IT품목 등의 부진으로 감소세

〈표 1-7〉 지역별 수출

(전년동기비, %)

	2004년		2005년				
	4/4	연간	1/4	2월	3월	4월	5.1~20
중 국	24.5	41.7	23.7	10.4	26.7	20.8	27.0
미 국	15.2	25.2	10.9	-5	9.4	-2.2	-14.1
일 본	17.0	25.6	9.4	-0.5	9.2	7.5	26.6
유 럽	39.0	39.8	22.2	9.4	20.4	15.6	26.8
아 세 안	13.3	18.6	10.0	0.5	15.6	5.7	30.4

자료: 산업자원부

■용도별 수입(4~5월중)

- 소비재 수입은 소비의 점진적인 회복으로 1분기에 비해 증가 폭 확대
- 원자재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원유도입금액의 증가로 1분기에 비해 증가 폭 확대
- 자본재는 국내설비투자 부진의 영향으로 1분기에 비해 증가세 둔화

〈표 1-8〉 용도별 수입

(비중(%), 전년동기비(%))

		2004년		2005년				
		4/4	연간	1/4	2월	3월	4월	5.1~20
소비재	비중	10.3	10.4	9.7	9.2	9.9	9.7	9.8
	증가율	9.3	10.6	8.1	2.3	8.7	10.0	16.2
원자재	비중	54.2	52.4	54.0	55.2	54.9	50.9	57.0
	증가율	35.5	31.6	18.7	10.0	28.6	18.6	33.5
자본재	비중	34.6	36.2	35.7	35.1	34.5	31.1	32.9
	증가율	11.4	21.7	17.6	-0.1	8.8	5.5	13.4

자료: 산업자원부

■국제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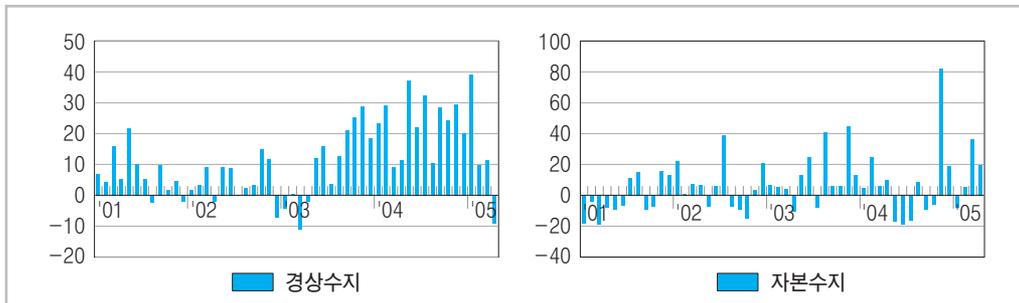
-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흑자 폭의 축소 등으로 흑자규모가 감소
 - 올 4월중에는 큰 폭의 소득수지 적자의 영향으로 2003년 4월 이후 처음으로 적자 전환
 - 상품수지는 수출증가세 둔화의 영향으로 흑자규모가 점차 축소
 - 서비스수지는 여행, 특허권사용료, 사업서비스 등의 지급확대로 적자 폭 증가
 - 소득수지는 12월 결산법인의 대외배당금 지급 등 계절적 요인으로 3월과 4월중 적자로 반전

- 자본수지는 1분기에 이어 4월중에도 흑자 지속

- 직접투자수지는 1분기중 적자를 지속하였으나 4월중에는 스탠다드차타드의 제일은행 인수자금 유입 등의 영향으로 흑자 전환
- 증권투자수지는 3월중에는 외국인 국내 주식투자자금의 큰 폭 유출, 4월중에는 국내금융기관발행의 중장기채 순상환 등의 영향으로 3~4월중 적자
- 기타투자수지는 3월중 예금은행의 해외대출금 회수, 4월중에는 예금은행의 매입외환 감소 등 큰 폭의 흑자

<그림 1-10> 경상수지와 자본수지

(억 달러)



자료: 한국은행

<표 1-9> 최근 국제수지

(억 달러)

	2004년		2005년				
	4/4	연간	1/4	1월	2월	3월	4월
경상수지	73.5	276.1	59.5	38.7	9.7	11.1	-9.1
상품수지	92.0	381.6	92.9	44.9	16.9	31.1	24.0
서비스수지	-24.1	-87.7	-30.5	-8.7	-10.5	-11.3	-9.1
소득수지	11.7	7.2	2.4	5.0	4.6	-7.2	-21.4
경상이전수지	-6.1	-25.0	-5.2	-2.5	-1.3	-1.4	-2.6
자본수지	94.0	83.2	32.1	-8.2	4.9	35.4	19.6
직접투자수지	14.3	34.0	-6.8	-0.2	-4.8	-1.8	13.9
증권투자수지	-26.4	92.7	-13.3	-15.5	17.0	-14.8	-10.4
기타투자수지	111.3	-25.7	57.3	9.4	-6.0	53.9	18.4

자료: 한국은행

7. 물가 및 임금

(1) 원화절상의 영향으로 전반적인 물가안정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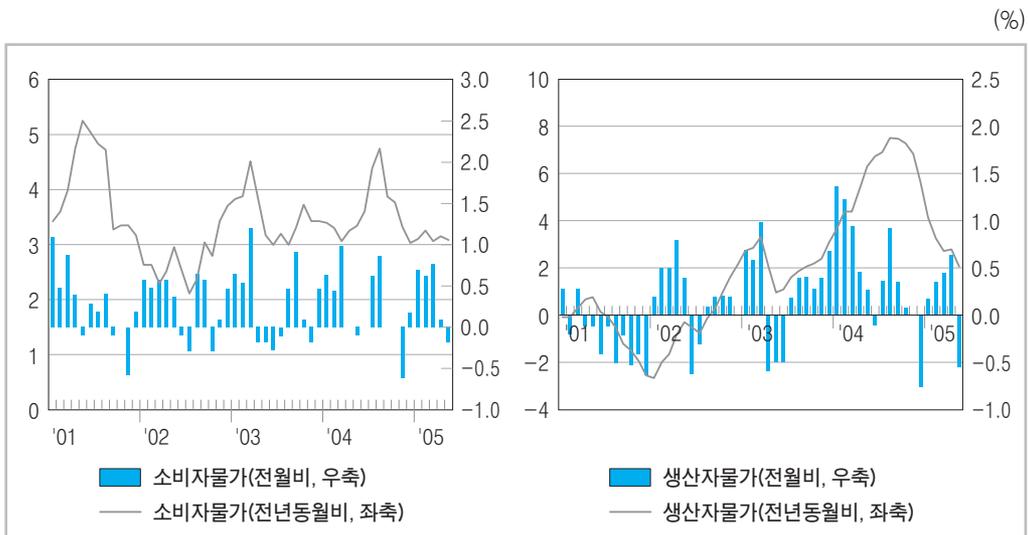
■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

— 소비자물가는 하향안정세를 보임

- 전기 대비로 1분기중 1.3% 상승했던 소비자물가가 4월중에는 0.1%로 증가세가 둔화되고 5월중에는 국제유가의 진정 등의 영향으로 감소세(-0.2%) 시현
- 전년동기비는 1분기중 3.2%에서 4~5월중에는 3.1%로 하락
- 근원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의 전년동기비 증가율은 소비자물가보다 더 큰 폭으로 둔화

— 생산자물가의 증가율은 지난해 4분기 전년동기비 6.5%에서 올 1분기에는 3.3% 그리고 4~5월중에는 2%대로 급락

〈그림 1-11〉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표 1-10〉 최근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

	2004년		2005년				
	4/4	연간	1/4	2월	3월	4월	5월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	3.4	3.6	3.2	3.3	3.2	3.1	3.1
전기비, %	-0.1	-	1.3	0.6	0.8	0.1	-0.2
농축수산물	-3.5	-	2.9	3.6	0.4	0.5	-1.5
공업제품	0.6	-	1.2	0.4	0.6	0.5	-0.2
집세	-0.1	-	-0.1	0.0	0.0	-0.2	0.0
공공서비스	1.2	-	1.4	-0.3	0.4	-1.0	0.2
개인서비스	0.2	-	1.1	0.3	1.6	0.2	0.4
근원물가(전년동기비, %)	3.1	2.9	3.0	3.2	2.8	2.7	2.5
전기비, %	0.4	-	1.1	0.2	0.6	0.0	0.0
생산자물가(전년동기비, %)	6.5	6.1	3.3	3.2	2.7	2.9	2.0
전기비, %	0.4	-	0.1	0.4	0.5	0.6	-0.5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 수입물가

-국제유가 등 원자재가격의 상승으로 올 들어 달러표시 수입물가가 크게 상승

• 달러표시 수입물가(전년동월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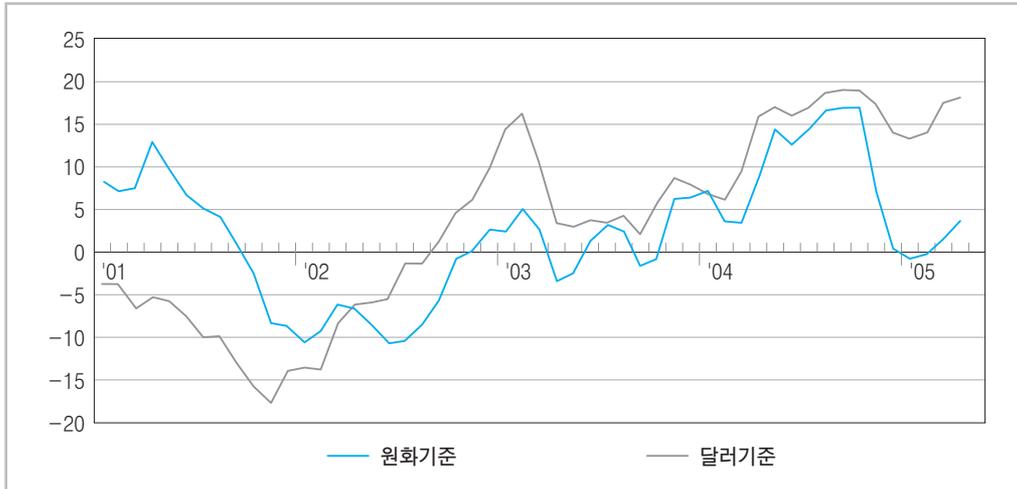
13.2%(1월)→13.7%(2월)→17.5%(3월)→18.0%(4월)

-그러나 원화표시 수입물가는 환율절상으로 낮은 증가율을 보임

• 원화표시 수입물가 : -0.8%(1월) → -0.3%(2월) → 1.4%(3월) → 3.6%(4월)

〈그림 1-12〉 수입물가

(전년동월비, %)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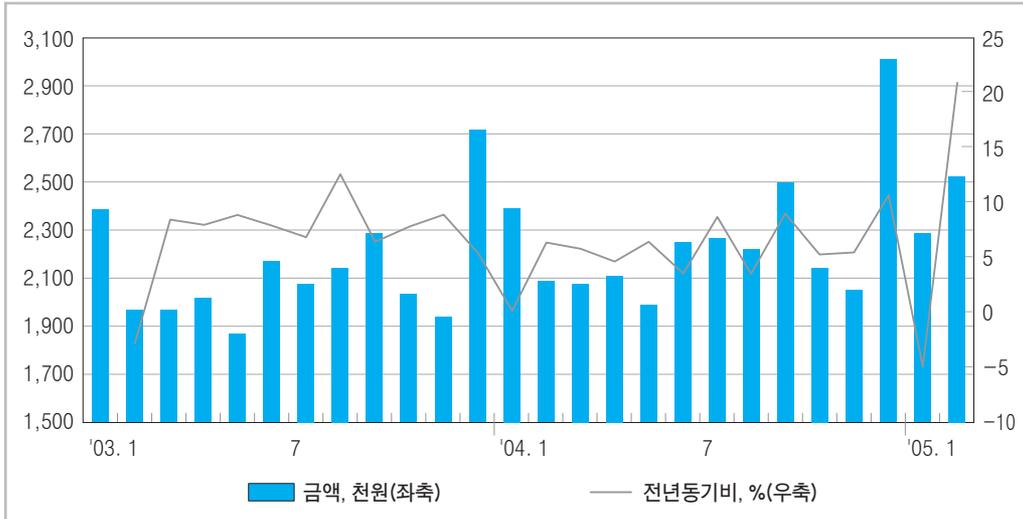
(2) 임금상승률, 점진적인 상승

■ 상용종업원(5인 이상 사업체) 월평균 임금의 증가율이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 2005년 1~2월중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2,399천원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7.1% 상승

- 지난해 4분기(7.7%)에 비해 증가율이 소폭 하락했으나 지난해 1분기중의 임금상승률 3.9%보다는 3.2%p 높은 수치
- 내역별로 볼 때, 계절적인 변동이 크지 않은 정액급여의 증가세가 점차 높아지고 있음
- 올 1월과 2월의 임금상승률이 큰 격차를 보이는 것은 설 연휴 이동에 따른 특별급여의 지급시기가 달랐던 데 기인(2004년에는 1월이었으나 2005년에는 2월)

<그림 1-13> 상용종업원 월평균 임금(5인 이상 사업체)



자료: 노동부

<표 1-11> 상용종업원 월평균 임금(5인 이상 사업체)

(전년동기비, %)

	2004년					2005년		
	1/4	2/4	3/4	4/4	연간	1~2월	1월	2월
임금총액	3.9	5.0	7.3	7.7	6.0	7.1	-4.8	20.9
정액급여	7.0	6.6	6.9	6.7	6.8	8.2	8.2	8.3
초과급여	3.1	2.5	2.5	-1.0	1.7	5.3	6.9	3.7
특별급여	-5.4	-0.5	9.8	13.3	4.6	4.2	-40.2	0.6

자료: 노동부

8. 통화 · 금융

(1) 총 유동성(M3) 증가율 5% 중반대 유지

■ 5월중 M3 증가율은 5% 중반 수준으로 추정

- M3 증가율은 3월, 4월에 이어 5월에도 5% 중반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 2월 이후 5% 중후반대의 안정적 증가율을 유지

- 해외부문을 통한 통화공급이 축소된 반면 민간 및 정부부문을 통한 통화공급은 확대되어 전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

- 2005년 들어 거의 변함없이 5% 중반 수준을 보인 M2 증가율은 5월에도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며 M1 증가율은 5월에는 4월보다 조금 상승한 9%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

- 최근 높은 M1 증가율은 재정 조기집행, MMF를 중심으로 한 단기수신 증가 등에 기인
- 5월 9%대 M1 증가율에는 투신안정기금 청산에 따른 MMF 환매로 전년 동월 M1 평잔이 크게 감소한 데 따른 반사효과도 원인

〈표 1-12〉 주요 통화지표 추이

(전년동기 대비, 평잔기준, %)

	2003	2004					2005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1월	2월	3월	4월	5월
M3	8.8	5.1	5.8	6.2	6.2	5.8	5.8	6.1	5.8	5.4	5.4	5중반
M2(신M2)	7.9	2.6	3.8	5.0	5.3	4.2	5.3	5.3	5.3	5.3	5.5	5중반
M1(신M1)	6.9	7.3	9.4	8.6	7.2	8.1	7.4	5.6	7.7	8.7	8.6	9내외
본원통화	6.5	6.9	4.4	2.4	3.3	4.2	1.5	-2.5	5.3	1.8	2.5	2.5

자료: 한국은행, 2005년 5월중 금융시장 동향

(2) 경기회복 기대 약화로 시장금리 하락 및 장단기 금리 차 축소

■ 국고채 및 회사채 유통수익률은 지속적으로 하락추세

- 국고채 및 회사채 유통수익률은 연초에 크게 상승한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여 6월 9일 현재 각각 3.65%와 4.06% 수준을 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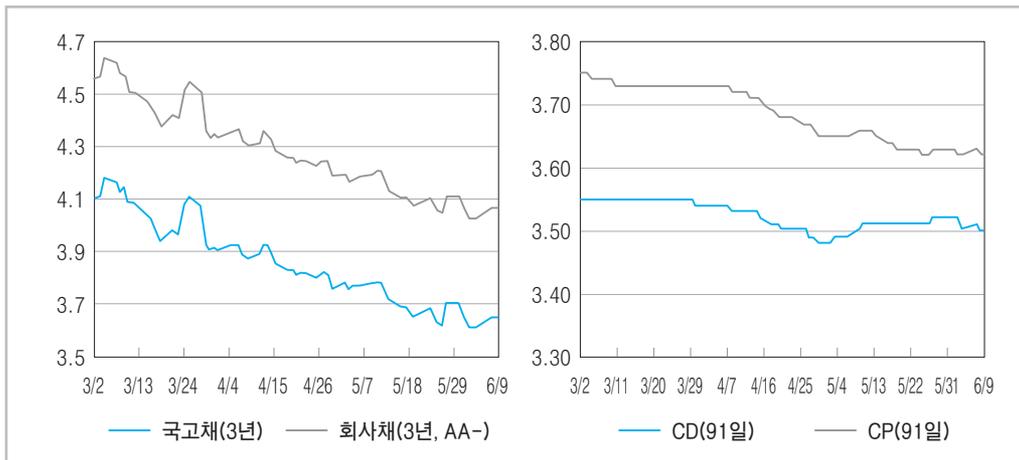
- 고유가 지속, 1분기 기업실적 및 4월 산업생산 부진 등으로 경기회복 기대가 상당히 약화되었고 이에 따른 저금리기조 유지 전망, 그리고 외국인의 대규모 국채선물 순매수 등에 기인

- 6월 9일 현재 콜금리는 3.28%로 한국은행의 콜금리 목표치 3.25%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안정세 유지

- 최근(5월 12일) 금융통화위원회는 기대와는 달리 경기부진이 계속되자 콜금리를 현 수준(연 3.25%)에서 유지하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의결

- 은행이 CD발행 확대를 통해 주택담보대출 재원을 늘임에 따라 CD공급이 늘어 CD 유통수익률은 상승

〈그림 1-14〉 주요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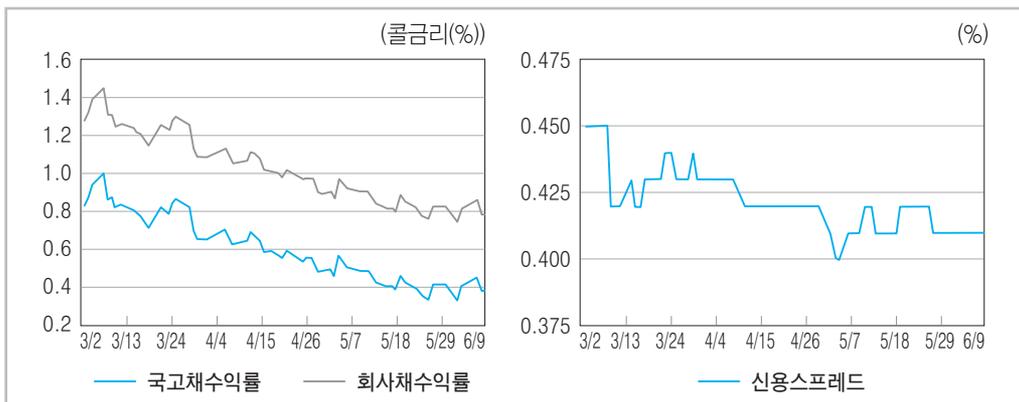


■ 장단기 금리 차 및 신용스프레드 축소

- 장단기 금리 차는 경기회복 기대 약화를 반영하여 계속 축소되고 있으며 회사채수익률의 하락 폭이 국고채수익률보다 더 커 신용스프레드도 축소추세

- 장단기 금리 차 = 국고채 또는 회사채 수익률 - 콜금리
- 신용스프레드 = 회사채수익률 - 국고채수익률

〈그림 1-15〉 장단기 금리 차와 신용스프레드 추이



〈표 1-13〉 주요금리

(말일, 연리 %)

	2003	2004				2005					
	12월	3월	6월	9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9일
콜금리(1일물)(A)	3.95	3.75	3.75	3.56	3.27	3.26	3.28	3.26	3.29	3.29	3.28
CD유통수익률(91일)	4.36	3.9	3.93	3.54	3.43	3.57	3.55	3.54	3.48	3.52	3.50
CP유통수익률(91일)	4.55	4.08	3.98	3.66	3.58	3.73	3.75	3.73	3.65	3.63	3.62
국고채(3년)(B)	4.82	4.50	4.24	3.53	3.28	4.06	4.04	3.91	3.76	3.67	3.65
회사채(3년, AA-)(C)	5.58	5.30	4.84	4.03	3.73	4.53	4.49	4.34	4.18	4.08	4.06
B-A(%p)	0.87	0.75	0.49	-0.03	0.01	0.8	0.76	0.65	0.47	0.38	0.37
C-A(%p)	1.63	1.55	1.09	0.47	0.46	1.27	1.21	1.08	0.89	0.79	0.78
C-B(%p)	0.76	0.8	0.6	0.5	0.45	0.47	0.45	0.43	0.42	0.41	0.41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3) 은행 수신의 큰 폭 증가와 투신사로의 자금유입 호조

■은행 수신은 4월에 큰 폭의 신장세 시현한 후 5월에는 증가세 둔화

-4월중 재정자금의 대규모 집행과 정기예금의 증가세 지속으로 은행 수신이 9.9조원 증가한 후 5월 들어서는 증가세 둔화

- 법인세 납부를 위한 인출 등으로 5월 들어서는 은행 수신 증가규모 둔화
- 5월에는 정기예금의 증가 폭은 감소한 반면, 주택담보대출 재원 확보를 위한 CD 발행은 증가

■투신사 수신도 채권형을 제외한 수익증권을 중심으로 자금유입 호조

-2005년 초 이후 채권형 수익증권의 감소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MMF, 주식형, 혼합형 수익증권으로의 자금유입은 꾸준한 증가세 시현

- 4월중 투신사 수신은 3.3조의 증가를 기록하였고 5월 들어서는 1.3조 증가하여 증가 규모 둔화
- 금리의 하향안정세로 인해 채권형 수익증권의 감소 폭은 축소

〈표 1-14〉 주요 금융기관 수신 추이

(월평균 증감, 조원)

	2003	2004					2005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1월	2월	3월	4월	5월
은행 ¹⁾	3.3	0.9	1.5	-0.6	-2.0	-0.1	0.0	-7.4	11.7	-4.3	9.9	1.9
(실세요구불)	0.1	0.4	-0.6	1.2	-0.4	0.2	-0.8	-0.4	1.1	-3.2	2.4	-0.6
(정기예금)	1.2	0.5	0.4	0.1	-1.1	0.0	-1.0	-3.3	-0.5	0.8	3.1	1.1
(수시입출식)	1.3	-1.7	-0.6	-0.5	0.4	-0.6	0.4	-2.4	5.8	-2.4	1.9	-1.4
(단기시장성)	0.8	2.0	2.0	-1.6	-0.7	0.4	1.9	-1.3	5.1	1.8	2.9	2.8
- C D	1.0	0.7	1.8	-0.3	0.9	0.8	1.0	-1.1	2.6	1.6	1.3	1.9
- R P	-0.2	1.1	0.2	-1.3	-1.6	-0.4	0.9	-0.2	2.4	0.5	1.3	0.8
〈금융채〉	0.8	0.2	1.7	1.3	0.9	1.0	-0.7	0.2	-0.5	-1.6	-0.0	0.9
투신사 ²⁾	-2.4	5.7	-0.3	4.5	5.2	3.8	1.8	0.7	4.6	-0.1	3.3	1.3
(MMF)	-0.6	4.9	-1.0	0.6	1.4	1.5	3.0	0.9	6.8	1.2	0.8	0.4
(주식형)	-0.1	-0.2	-0.2	-0.2	0.3	-0.1	0.6	0.2	0.7	0.7	0.9	1.2
(채권형)	-0.6	0.1	1.2	3.5	2.5	1.8	-3.3	-2.1	-4.1	-3.7	-0.1	-0.1
(혼합형)	-1.1	0.9	-0.6	-0.4	-0.3	-0.1	0.3	0.3	0.0	0.5	0.8	-0.9
은행신탁	-1.3	-1.8	-0.1	-0.7	-0.5	-0.8	0.3	0.3	0.9	-0.1	-1.3	-0.4
(특정금전신탁)	-0.6	-1.0	-0.3	-0.2	-0.2	-0.4	0.8	0.8	1.5	0.0	-0.3	-0.2

주: 1) 금융채 제외 2) 2004년 6월부터 파생상품펀드 등 간접투자펀드 운용액 포함
 자료: 한국은행, 2005년 5월중 금융시장 동향

(4) 은행의 기업대출 호조로 기업의 자금조달 규모 증가

■ 기업의 자금조달은 견조한 증가세 유지

-은행의 기업대출은 4월에 큰 폭으로 증가한 후 5월 들어서도 증가세 유지

- 부가세 납부 등으로 인한 기업의 계절적 자금수요와 은행의 높은 수신 증가에 기초한 대출확대로 4월 은행의 기업대출은 3조원의 큰 폭으로 증가
- 은행의 기업대출은 5월 들어서도 전월에 비해 증가 폭은 축소되었으나 증가세를 유지

-은행의 대기업대출보다 중소기업대출이 상대적으로 호조

- 3월중 감소한 기업대출은 4월에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 대출이 각각 1.1조원, 1.9조원 증가로 반전되었으며, 5월에는 각각 0.3조와 1.5조로 증가 폭이 축소되었으나 중소기업대출의 증가 폭 감소는 상대적으로 미약

-4월 들어 1.9조원의 증가를 보인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은 5월 들어 회사채의 순상환 전환으로 인해 감소

- 최근 회사채 발행액은 증가하였으나(4월 4.2조원 → 5월 5조원), 5월 들어 만기도래로 인한 상환액 규모 확대(4월 3.4조원 → 5월 5.9조원) 증가세에 있던 회사채 순발행은 큰 폭의 순상환으로 전환
- 일부 공기업의 CP발행 증가로 CP순발행은 5월에도 증가세 유지

〈표 1-15〉 기업 자금조달 추이¹⁾

(기간중 증감, 조원)

	2003	2004					2005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1월	2월	3월	4월	5월
은행대출 ²⁾	2.5	2.7	0.6	0.5	-2.5	0.3	0.7	2.6	0.4	-1.0	3.0	1.7
(대 기업)	-0.4	0.4	-0.8	-0.0	-0.6	-0.3	-0.0	0.7	0.2	-0.9	1.1	0.3
(중소기업)	2.9	2.3	1.3	0.6	-1.9	0.6	0.7	1.9	0.3	-0.0	1.9	1.5
[개인사업자]	1.6	0.8	0.5	0.2	-0.3	0.3	-0.0	0.2	0.1	-0.4	-0.0	0.2
회사채순발행 ³⁾	-0.3	-0.6	0.6	-0.8	-0.1	-0.2	0.1	0.2	-1.6	1.7	0.7	-1.1
CP순발행 ⁴⁾	-0.2	0.8	-1.0	0.6	-1.0	-0.2	0.3	2.5	0.5	-2.1	1.1	0.5
주식발행	0.2	0.2	0.2	0.4	0.2	0.3	0.2	0.2	0.2	0.2	0.1	0.2
계	2.6	3.4	0.7	1.1	-2.7	0.6	1.5	5.6	-0.2	-0.9	5.0	1.3

주: 1) 금융기관 제외

2) 신탁계정 포함, 산업은행 제외

3) 일반기업이 발행한 공모회사채(ABS 제외, P-CBO 포함)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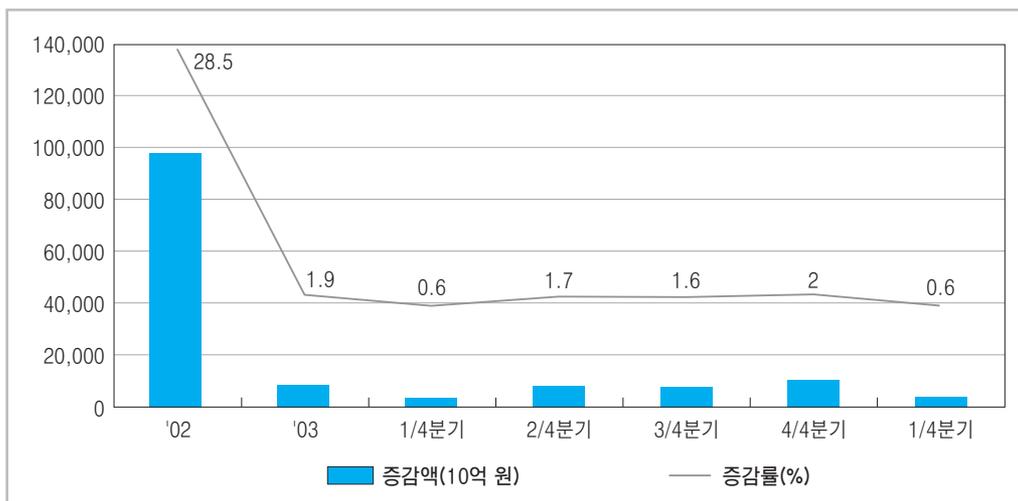
4) 증권사 및 증권사 기준

자료: 한국은행, 2005년 5월중 금융시장 동향

(5) 가계대출 증가로 가계신용잔액 증가 폭 다시 확대

- 2005년 1분기 가계신용잔액 증가율은 전기 대비 0.6%에 그쳐 증가 폭 크게 둔화
 - 2005년 3월말 현재 가계신용잔액은 477조 7,191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0.6% 증가하여 2004년 4분기의 증가율 2.0%에 비해 증가세가 크게 둔화
 - 가계대출잔액의 증가율은 0.8%로 전분기 증가율 1.9%보다 증가 폭이 크게 축소
 - 특히 여신전문기관(신용카드회사, 할부금융회사)의 가계대출잔액은 2003년말부터 지속적으로 감소
 - 분기말 여신전문기관 가계대출잔액(10억원): 03년 4분기(37,324.1) → 04년 1분기(34,806.2) → 04년 2분기(32,720.0) → 04년 3분기(30,113.1) → 04년 4분기(26,514.2) → 05년 1분기(25,070.8)
 - 신용카드회사, 할부금융회사 등의 판매신용잔액은 전분기에 비해 잔액이 656억원 감소하여 전기 대비 -2.6%의 증가율 기록

〈그림 1-16〉 가계신용잔액 증감액 추이(전기말 대비)



〈표 1-16〉 가계신용잔액 증감액¹⁾

(10억원, %)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5년 3월말	
			1/4	2/4	3/4	4/4		잔액	구성비
가계신용	97,386.6 (28.5)	8,507.7 (1.9)	2,887.7 (0.6)	7,561.4 (1.7)	7,187.4 (1.6)	9,458.3 (2.0)	3,056.8 (0.6)	477,719.1	100.0
가계대출	87,600.0 (28.9)	29,818.9 (7.6)	4,750.2 (1.1)	8,070.8 (1.9)	7,437.5 (1.7)	8,201.4 (1.9)	3,712.8 (0.8)	453,111.0	94.8
판매신용	9,786.6 (25.7)	-21,311.3 (-44.5)	-1,862.5 (-7.0)	-509.4 (-2.1)	-250.1 (-1.0)	1,256.9 (5.2)	-656.0 (-2.6)	24,608.1	5.2

주: 1) 전기말 대비 증감액 2) () 안은 전기말 대비 증감률
 자료: 한국은행, 2005년 1/4분기중 가계신용동향

〈표 I -17〉 형태별·기관별 가계신용잔액 추이

(10억원, %)

	2003년	2004년				2005년
	12월말	3월말	6월말	9월말	12월말	3월말
가계신용잔액(A+B)	447,567.5 (1.9)	450,455.2 (2.5)	458,016.6 (4.3)	465,204.0 (5.7)	474,662.3 (6.1)	477,719.1 (6.1)
	〈8,507.7〉	〈2,887.7〉	〈7,561.4〉	〈7,187.4〉	〈9,458.3〉	〈3,056.8〉
가계대출잔액(A)	420,938.3 (7.6)	425,688.5 (7.3)	433,759.3 (7.7)	441,196.8 (7.7)	449,398.2 (6.8)	453,111.0 (6.4)
	〈29,818.9〉	〈4,750.2〉	〈8,070.8〉	〈7,437.5〉	〈8,201.4〉	〈3,712.8〉
예금은행	253,756.9 (14.3)	258,965.0 (14.1)	265,290.3 (12.1)	270,643.4 (10.2)	276,326.6 (8.9)	279,178.4 (7.8)
	〈31,740.4〉	〈5,208.1〉	〈6,325.3〉	〈5,353.1〉	〈5,683.2〉	〈2,851.8〉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 ¹⁾	7,967.0	8,004.4	8,186.6	8,387.7	8,869.3	8,655.9
신탁·우체국예금 보험기관	58,929.4	60,280.6	63,422.6	65,730.8	69,102.9	69,658.2
	1,359.7	1,307.1	1,235.0	1,201.4	1,241.3	1,225.5
여신전문기관	42,875.2	43,215.2	43,358.4	44,270.5	45,266.9	46,197.2
	37,324.1 (-34.6)	34,806.2 (-36.2)	32,720.0 (-29.2)	30,113.1 (-23.5)	26,514.9 (-29.0)	25,070.8 (-28.0)
	〈-19,782.2〉	〈-2,517.9〉	〈-2,086.2〉	〈-2,607.0〉	〈-3,598.2〉	〈-1,444.1〉
신용카드회사 할부금융회사	30,492.3	28,036.8	26,875.3	24,388.1	21,360.7	20,512.3
	6,831.8	6,769.4	5,844.7	5,725.0	5,154.2	4,558.5
국민주택기금 등	18,725.9	19,109.9	19,546.4	20,849.9	22,076.4	23,125.0
판매신용잔액(B)	26,629.2 (-44.5)	24,766.7 (-41.8)	24,257.3 (-33.6)	24,007.2 (-21.0)	25,264.1 (-5.1)	24,608.1 (-0.6)
	〈-21,311.3〉	〈-1,862.5〉	〈-509.4〉	〈-250.1〉	〈1,256.9〉	〈-656.0〉
여신전문기관	25,782.9	24,045.4	23,602.0	23,392.4	24,733.1	24,047.4
신용카드회사 할부금융회사	21,349.0	19,960.3	19,888.9	19,796.5	20,480.7	19,864.2
	4,433.9	4,085.1	3,713.1	3,595.9	4,252.4	4,183.2
판매회사	846.4	721.3	655.3	614.8	531.0	560.7

주: 1) 신탁, 새마을금고, 상호금융

2) () 안은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 > 안은 전기 대비 증감액

자료: 한국은행, 2005년 1/4분기중 가계신용 동향

■ 최근 은행 가계대출의 큰 폭 증가로 가계신용잔액 증가 폭 다시 확대

-은행의 가계대출은 4월의 3.1조 증가에 이어 5월에는 4.2조 증가

- 5월의 증가규모는 2003년 10월 이후 최고 수준
- 강남 재건축단지에 대한 대규모 집단대출 취급 등의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최근 크게 증가
- 마이너스통장대출도 코스닥 청약 증거금 납부 등의 요인으로 크게 증가

-은행의 가계대출은 전체 가계신용잔액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므로 둔화되던 가계신용잔액 증가 폭은 다시 확대

<표 1-18> 은행의 가계대출

(기간중 월평균 증감, 조원)

	2003년	2004년					2005년		
		1/4	2/4	3/4	4/4	연간	1/4	4월	5월
가계대출 ¹⁾	2.6	1.7	2.1	1.8	1.9	1.9	0.9	3.1	4.2
(주택담보대출 ²⁾)	1.8	1.0	1.8	1.4	1.3	1.4	0.8	2.1	2.1
(마이너스통장대출 등)	1.3	0.9	0.4	0.5	0.7	0.7	0.2	1.0	2.1
상호저축은행 가계대출	0.1	0.1	-0.0	0.1	0.1	0.1	-0.1	0.1	

주: 1) 종별대출은 신탁 제외 2) 주택자금대출 포함
 자료: 한국은행, 2005년 5월중 금융시장 동향

■ 1분기 신용카드 이용실적은 전분기 대비 및 전년동기 대비 모두 감소세

-2005년 1분기중 신용카드 이용실적(겸영은행 포함)은 88.8조원으로 전년동기 및 전분기 대비 모두 4.9조원 감소(-5.3%)

- 이는 2003년 이후 대출서비스가 크게 감소하고 그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주로 기인
- 반면, 신용판매금액은 59.5조원으로 계절적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크게 증가하였

던 전분기에 비해서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전년동기(54.8조원) 대비 4.7조원 (8.5%) 증가

—계절적 요인을 감안하면 2004년초 이후 신용판매금액은 안정적인 증가세를 시현

- 신용판매 실적추이: 04.1분기(54.8조)→2분기(56.5조)→3분기(57.2조)→4분기(61.4조)→05.1분기(59.5조)

〈표 I -19〉 신용카드 이용실적 추이

(조원)

	2003년			2004년					2005년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결제서비스	53.1	56.8	240.7	54.8	56.5	57.2	61.4	229.9	59.5
(일시불)	42.3	45.3	190.3	44.2	46.2	47.4	50.2	188.0	48.9
(할 부)	10.8	11.5	50.4	10.6	10.3	9.8	11.2	41.9	10.6
대출서비스	64.2	52.8	276.6	38.9	34.5	32.5	32.3	138.1	29.2
(현금서비스)	55.0	44.6	239.5	35.0	32.6	30.1	29.8	127.6	27.6
(카드론)	9.2	8.2	37.1	3.8	1.8	2.4	2.5	10.5	1.7
합 계	117.3	109.5	517.3	93.7	91.0	89.7	93.7	368.0	88.8

자료: 금융감독원

(6) 하락추세를 보이던 종합주가지수는 5월 들어 상승세로 반등

- 등락을 거듭하며 하락추세를 보이던 주가는 5월 들어 상승추세로 반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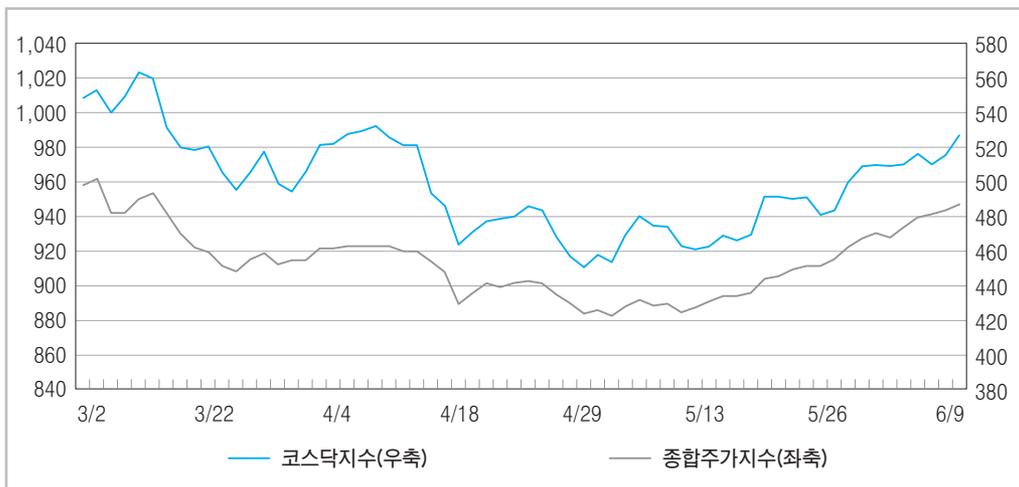
—국제유가 상승, 환율 불안 및 미 연준의 금리인상 등으로 인해 3월 중순부터 시작된 주가 하락세는 4월 동안에도 등락을 거듭하며 지속

- 단기적인 미국의 주가상승 및 하락세 지속에 대한 기술적 반등으로 인해 일시적 주가상승은 있었으나 하락추세를 반전시키기에는 역부족

-5월 들어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지속되고 IT주 및 기술주 실적개선 기대감과 미 연준의 급격한 금리인상에 대한 우려가 점차 사라짐에 따라 주가는 상승세를 유지

- 종합주가지수와 코스닥지수는 5월 각각 916.48과 426.61에서 출발하여 6월 9일 현재 각각 987.6과 488.1을 기록

<그림 1-17> 주가지수 추이



<표 1-20> 주식시장 주요지표

(조원, %, 말일기준)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9일
종합주가지수(KOSPI)	627.55	810.71	895.92	932.70	1,011.36	965.68	911.30	970.21	987.6
거래대금(평균)	3.0	2.2	2.2	2.3	3.6	3.0	2.1	1.7	3.1
시가총액	258.70	355.40	412.59	430.66	469.42	448.73	422.64	450.82	458.6
고객예탁금	8.1	9.5	8.5	8.5	10.6	10.0	9.6	9.5	10.1
기간중 외국인순매수	-2.711	13.769	10.485	10.485	1.503	-2.028	-0.172	0.190	0.272

자료: 재정경제부, 주요금융통계

9. 환율

(1) 원/달러 환율은 5월 들어 상승세 반전, 원/엔 환율은 하락세 유지

■ 원/달러 환율은 5월 상승세 반전 이후 소폭의 등락 거듭

- 4월중 원/달러 환율은 큰 폭의 등락을 거듭하며 하락세 시현

- 엔/달러 환율 하락, 수출네고물량 확대, 미국의 경기회복 둔화 우려, 중국 위안화 절상 임박설 확산 등으로 4월중 원/달러 환율은 하락세 시현
- 4월말 원/달러 환율은 997.1원으로 전월말 대비 18.4원 하락하여

- 5월 들어서는 상승세 반전 후 소폭의 등락을 거듭하여 월말에는 1002.5원으로 전월말 대비 5.4원 상승하여 전년말 대비 3.15% 절하되었고 6월 9일 현재 1,005.7원을 기록

- 엔화 약세, 역외 달러 매수세, 북-미간 긴장 증대 등으로 상승세로 반전하였으나 중국 위안화 절상 가능성 증대, 외국인 주식 순매수, 수출네고물량 출회 등의 하락 요인으로 소폭의 등락을 거듭

■ 원/엔 환율은 엔화의 약세 지속으로 하락세 유지

- 2005년 1분기 일본 GDP성장률은 전기 대비 1.3%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엔화 약세 지속

- 원/엔 환율(100엔당)은 5월말 928.37원을 기록하여 전월말 대비 16.36원 하락하여 전년말 대비 8.27% 절상되었고 6월 9일 현재 937.67원을 기록

〈그림 1-18〉 원/달러 및 원/엔 환율 추이



〈표 1-21〉 원/달러 및 원/엔 환율

	2003년말	2004년말	2005년					
			1월말	2월말	3월말	4월말	5월말	6월 9일
원/달러 환율	1192.60	1035.10	1025.60	1006.00	1,015.50	997.10	1,002.50	1,005.70
(전년말 대비, %)	0.53	-13.20	-0.92	-2.81	-1.89	-3.67	-3.15	-2.84
원/100엔 환율	1,119.60	1,012.07	999.06	957.59	952.53	944.73	928.37	937.67
(전년말 대비, %)	10.53	-9.60	-1.29	-5.38	-5.88	-6.65	-8.27	-7.35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제II장

해외경제동향 및 전망

1. 주요국 경제
2. 국제 환율
3. 국제원자재 가격

1. 주요국 경제

(1) 동향

1) 미국: 견조한 성장세 유지

■유가상승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소폭 둔화된 모습

-1분기중 GDP가 추정치인 3.1%보다는 높은 전기 대비 연율 3.5% 증가하였으나 작년 4분기(3.8%)보다 다소 둔화된 수준

-산업생산 증가율은 작년 4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둔화하다가 4월중 마이너스로 반전

■그러나 소매판매액, ISM제조업지수 등의 주요 경제지표들은 미국의 경기가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임을 시사

-ISM제조업지수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기준치(50)를 상회

• 56.4(1월) → 55.3(2월) → 55.2(3월) → 53.3(4월) → 51.4(5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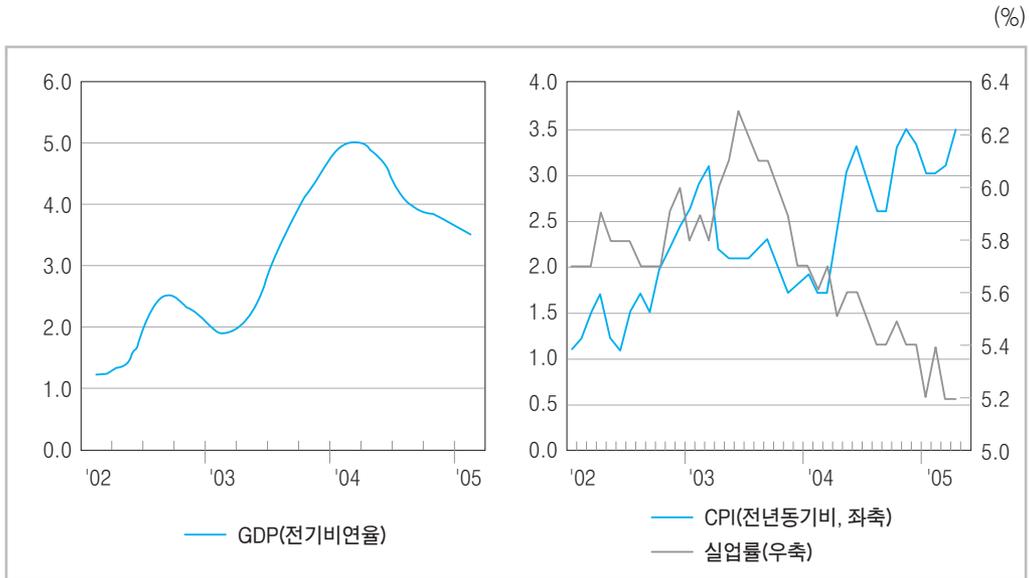
-제조업가동률도 점차 하락하는 모습이나 작년 연간치를 상회하는 수준

-소비자물가의 전월 대비 증가율은 3월(0.6%)과 4월(0.5%) 각각 상승하며 오름세를 지속

• 0.1%(1월) → 0.4%(2월) → 0.6%(3월) → 0.5%(4월)

-소매판매액와 소비자신뢰지수는 상승

<그림 II-1>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표 II-1>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전기 대비, %, 만 명)

	2004년			2005년					
	3/4	4/4	연간	1/4	1월	2월	3월	4월	5월
GDP성장률 ¹⁾	4.0	3.8	4.4	3.5					
산업생산	0.7	1.1	4.1	0.9	0.0	0.2	0.1	-0.2	
소매판매액	1.4	2.4	7.6	1.3	0.1	0.7	0.4	1.4	
소비자물가	0.4	0.9	2.7	0.6	0.1	0.4	0.6	0.5	
실업률(%)	5.5	5.4	5.5	5.3	5.2	5.4	5.2	5.2	5.1
수출	6.0	3.2	13.2	7.0	0.0	0.0	1.4		
제조업가동률	77.0	77.6	76.7	78.1	78.2	78.5	78.0	77.9	
소비자신뢰지수 ²⁾	100.4	96.0	96.0	104.2	105.1	104.4	103.0	97.7	102.2
ISM제조업지수 ³⁾	60.1	57.5	60.5	55.6	56.4	55.3	55.2	53.3	51.4

주: 1) 전기비연율 2) Conference Board(1985=100) 3) 기준치=50
 자료: 미 상무부, 노동부, 연방준비위원회, 공급관리협회(ISM), 한국은행

2) 일본: 빠른 회복세

■ 일본경제가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

-GDP성장률이 전기 대비 1.3%(연율 5.3%) 성장

-수출은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한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에 대해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여 전년동월 대비 7.8%로 크게 증가

• 3.2%(1월) → 1.7%(2월) → 6.1%(3월) → 7.8%(4월)

-3~4월중 소비자물가가 증가세로 돌아서며 디플레이션의 조짐에서 탈피

• -0.9%(1/4분기) → 0.3%(3월) → 0.0%(4월)

-소매판매도 연속 2개월의 마이너스 성장세에서 벗어나 4월중 큰 폭으로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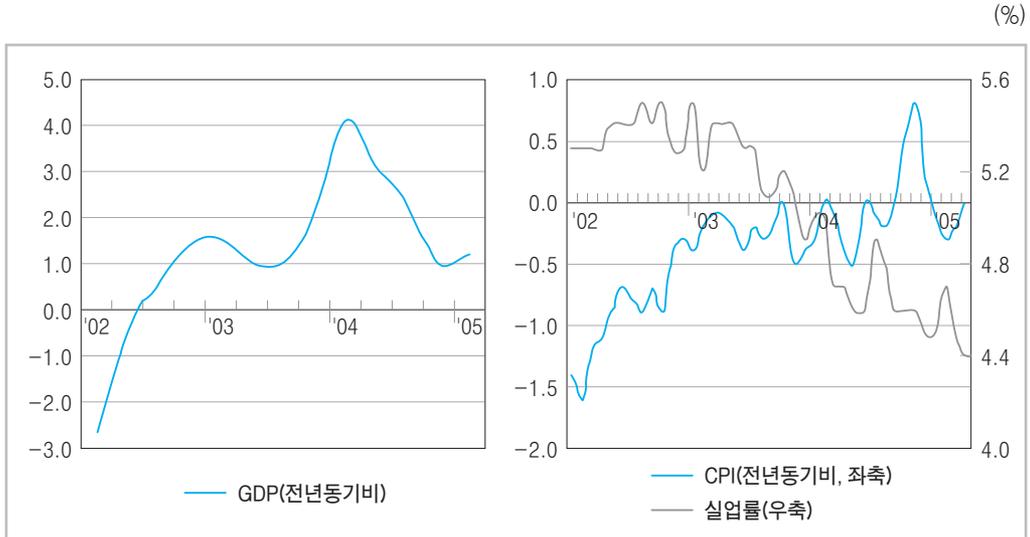
• -2.3%(2월) → -0.3%(3월) → 2.9%(1월)

-또한 광공업생산도 3개월만에 다시 증가세로 반전

• -2.6%(2월) → -0.9%(3월) → 2.2%(4월)

-실업률도 4.4%를 기록하여 1998년 10월(4.3%) 이후 최저치를 기록

<그림 II-2> 일본의 주요 경제지표



<표 II-2> 일본의 주요 경제지표

(전기 대비, %)

	2004년			2005년				
	3/4	4/4	연간	1/4	1월	2월	3월	4월
GDP성장률	-1.0	0.1	2.7	1.3				
광공업생산	-0.1	-0.9	5.5	1.7	3.2	-2.3	-0.3	2.2
소매판매액	0.4	0.3	-0.6	2.4	4.6	-2.6	-0.9	2.9
소비자물가	0.0	0.4	0.0	-0.9	-0.5	-0.2	0.3	0.0
실업률(%)	4.8	4.5	4.7	4.6	4.5	4.7	4.5	4.4
수출 ¹⁾	12.4	11.3	12.1	5.2	3.2	1.7	6.1	7.8

주: 1) 전년동기비

자료: 일본 내각부, 경제산업성, 재무성, 총무성, 일본은행, 한국은행 등

3) 유로: 저성장세 지속

■ 유로지역 경제는 저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음

- 1분기 GDP의 전기비 증가율이 소비증가로 4분기에 비해 높아졌으나 수출부진으로 산업생산이 감소

- 수출증가율은 지난해 4분기 전년동기비 8%대에서 올 1분기에는 3%대로 급락
- 산업생산이 2005년 1월 이후 2개월 연속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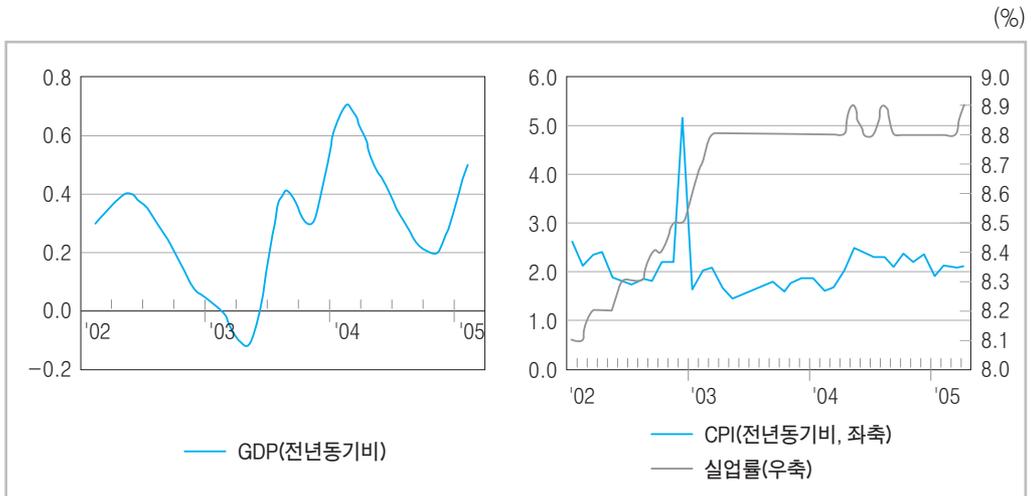
- 구매자관리지수(PMI)와 경기체감지수도 각각 기준치 이하로 하락

- PMI지수: 50.4(3월) → 49.2(4월)
- 경기체감지수: 100.8(1월) → 98.8(2월) → 97.4(3월) → 96.5(4월)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개월 연속 전년동기 대비 2.1% 지속

- 실업률은 1분기의 8.8%에서 4월중에는 8.9%로 상승

〈그림 II-3〉 EU의 주요 경제지표



자료: 유로통계청

〈표 II-3〉 EU의 주요 경제지표

(전기 대비, %)

	2004년			2005년				
	연간	3/4	4/4	1/4	1월	2월	3월	4월
GDP성장률	1.8	0.3	0.2	0.5				
산업생산 ¹⁾	2.0	-0.3	-0.4	-0.2	0.2	-0.6	-0.2	
소매판매	0.1	-0.2	-0.1	0.6	0.4	0.2	0.3	
소비자물가 ²⁾	2.1	2.2	2.3	2.0	1.9	2.1	2.1	2.1
실업률(%)	8.9	8.9	8.8	8.8	8.8	8.8	8.8	8.9
수출 ²⁾	8.5	8.8	8.6	3.6	6.7	4.3	-0.1	2.1
PMI지수 ³⁾	53.1	53.9	51.4	51.4	51.9	51.9	50.4	49.2
경기체감지수 ⁴⁾	100.1	100.7	100.9	99.0	100.8	98.8	97.5	96.5

주: 1) 건설업 제외 2) 전년동기 대비 3) 기준치=50, 제조업 4) 2000=100
 자료: 유로통계청

4) 중국: 높은 성장세 지속

■ 1분기중 GDP성장률은 9.4%로 여전히 높은 증가세를 보임

- 산업생산은 1분기에 이어 4월중에도 높은 증가세 지속

• 14.5%(1분기) → 15.1%(3월) → 16.0%(4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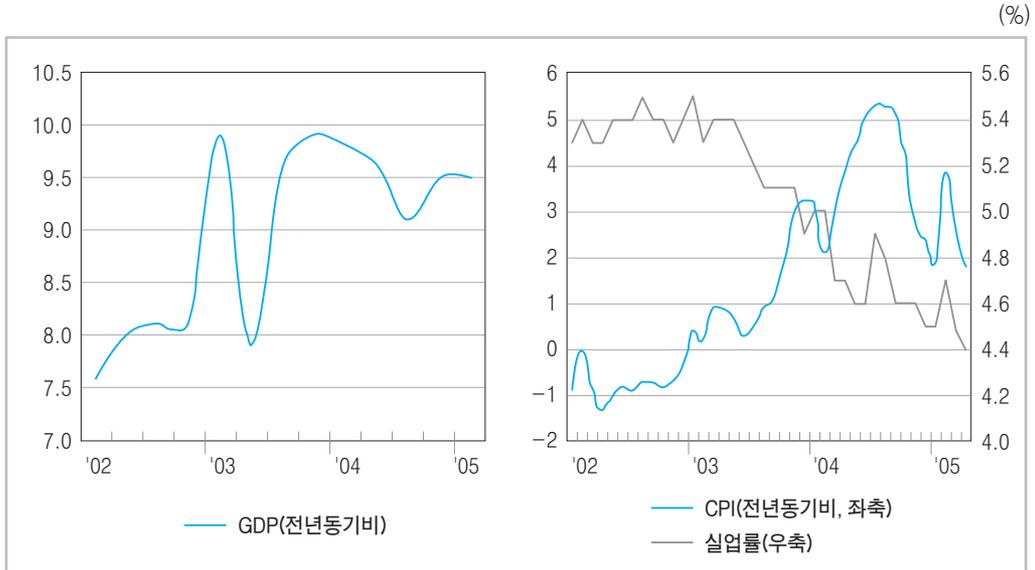
- 고정자산투자는 전월에 비해 증가세가 점진적으로 확대

• 고정자산투자 : 24.5%(2월) → 25.3%(3월) → 25.7%(4월)

- 수출과 수입 모두 높은 증가세 지속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점차 둔화

〈그림 II -4〉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추이



〈표 II -4〉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추이

(전년동기 대비, %)

	2004년			2005년				
	3/4	4/4	연간	1/4	1월	2월	3월	4월
GDP성장률	9.1	9.5	9.5	9.4				
산업생산	15.8	15.0	16.3	14.5	20.9	7.6	15.1	16.0
소매판매	13.4	14.2	13.3	13.7	11.5	15.8	13.9	
소비자물가	5.3	3.2	3.9	2.8	1.9	3.9	2.7	1.8
수출증가율	34.8	35.7	35.5	34.9	42.1	30.0	32.8	31.9
수입증가율	30.6	30.8	37.5	12.2	23.9	-5.1	18.6	16.2
고정투자 ¹⁾	27.7	25.8	25.8	22.8	24.5	24.5	25.3	25.7
M2상승률	14.3	14.0	16.2	14.0	14.1	13.9	14.0	14.1

주: 1) 누계기준(예: 2004년 9월중 29.9%는 1~9월중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2) 전망

1) 세계경제, 비교적 양호한 증가세 지속 전망

■ 2005년 세계경제는 2004년에 비해서는 낮으나 비교적 양호한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

- 고유가, 원자재가격 급등, 환율 불안 등 작년과 유사한 불안요인들이 존재하나 금리 안정, 중국성장 지속, 일본경제 회복 조짐 등 긍정적 요인 존재

- 하반기에는 미국 정책금리 인상추세가 멈출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미국경제 및 세계 금리 안정화 추세에 기여할 것임
- 일본경제는 지난 3분기 동안의 조정국면을 벗어나 회복국면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국면이 연중 지속될 전망
- 중국은 위안화 조정이슈로 성장세가 소폭 둔화되겠으나 수출호조, 외국인 투자유입이 지속되고 있는데다 서부대개발 및 올림픽 관련투자의 영향으로 8%대의 높은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
- 유로지역의 저성장세 지속될 전망. 최근 유럽중앙은행(ECB)은 올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1.6%에서 1.4%로 하향조정

〈표 II-5〉 주요국의 경제성장 전망

	2003	2004	2005		
			IMF	OECD	World Bank
세계성장률(%)	3.9	5.1	4.3	2.6	3.1
미국(%)	3.0	4.4	3.6	3.6	3.9
일본(%)	2.5	2.6	0.8	1.5	0.8
유로(%)	0.5	2.0	1.6	1.2	1.5
중국(%)	9.3	9.5	8.5		

주: 1) 발표시점은 IMF는 2005년 4월, World Bank는 2005년 4월, OECD는 2005년 5월

2) OECD 세계성장률 전망은 OECD회원국 성장률

2. 국제 환율

(1) 동향

1) 미, 경기호조에 힘입어 달러화 강세 지속

■ 미국의 수차례에 걸친 금리인상과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성장으로 달러약세요인이 일부 상쇄되면서 달러 강세가 지속되고 있음

- 엔/달러 환율은 4월 중순 이후 미국경제 성장률 저하 및 위안화 절상 가능성 등의 영향으로 급락하기도 했으나 5월 이후 미국의 높은 성장률 실현과 금리인상으로 인해 다시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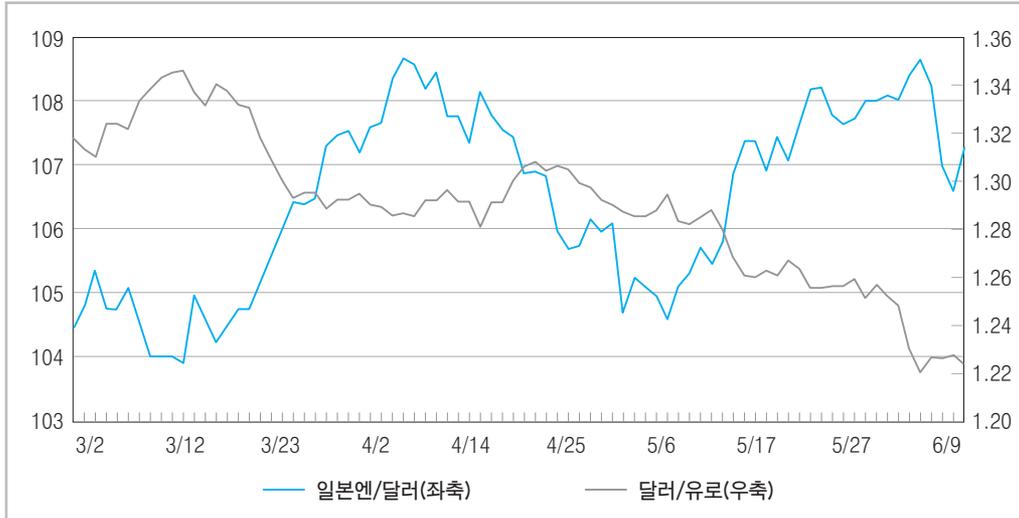
- 엔/달러 환율은 5월말 107.98엔으로 전월말 대비 1.87엔 상승하였고 6월 9일 현재 106.57엔을 기록

- 미국은 견조한 소비지출 증가에 힘입어 1분기 3.5%의 성장을 기록함으로써 8분기 연속 3%대의 성장을 달성하였으며, FOMC(Federal Open Market Committee)는 미국경제의 성장세 지속을 전망하고, 연방기금금리를 2.75%에서 3.00%로 25bp 인상(5월 3일)

- 달러/유로 환율은 유로지역의 경기회복 지연으로 유로화 가치가 약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최근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EU헌법 국민투표 부결로 하락 가속화

- 달러/유로 환율은 5월말 1.25달러/유로로 전년말 대비 0.11달러 하락하였고 6월 9일 현재 1.22달러/유로를 기록

<그림 II -5> 엔/달러 및 달러/유로 환율 추이



<표 II -6> 엔/달러 및 달러/유로 환율

	2003년말	2004년말	2005년					
			1월말	2월말	3월말	4월말	5월말	6월 9일
엔/달러 환율	106.99	103.13	103.67	105.27	107.53	106.11	107.98	106.57
(전년말 대비, %)	-9.72	-3.60	0.52	2.08	4.27	2.89	4.70	3.99
달러/유로 환율	1.25	1.36	1.30	1.32	1.29	1.29	1.25	1.22
(전년말 대비, %)	19.76	8.66	-4.41	-2.94	-5.15	-5.15	-8.09	-10.04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2) 전망

1) 달러화, 엔화에 대해서는 약세 유로화에 대해서는 강세

■ 하반기중 달러화는 엔화에 대해서는 약세(엔/달러 환율 하락)를 보이겠지만 유로화에 대해서는 강세(달러/유로 환율 하락)를 지속할 전망

- 엔/달러 환율 하락요인: 달러화의 구조적 약세요인인 쌍둥이 적자 지속, 일본경제의 회복에 따른 양국간 성장률 격차 축소

- 달러/유로 환율 하락요인: 유로존과 미국간 성장률 격차 확대, EU헌법 국민투표 부결 등으로 인한 유럽경제 통합에 대한 회의적 전망이 확산

-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올 미국경제 성장률이 3.6%에 달하는 반면 유로지역 성장률은 1.6%에 그칠 것으로 전망

3. 국제원자재 가격

(1) 동향

1) 국제원자재 가격, 5월 중순 이후 다시 상승

■국제유가

-2분기 들어 국제유가가 진정되는 듯 보였으나 5월 중순 이후 다시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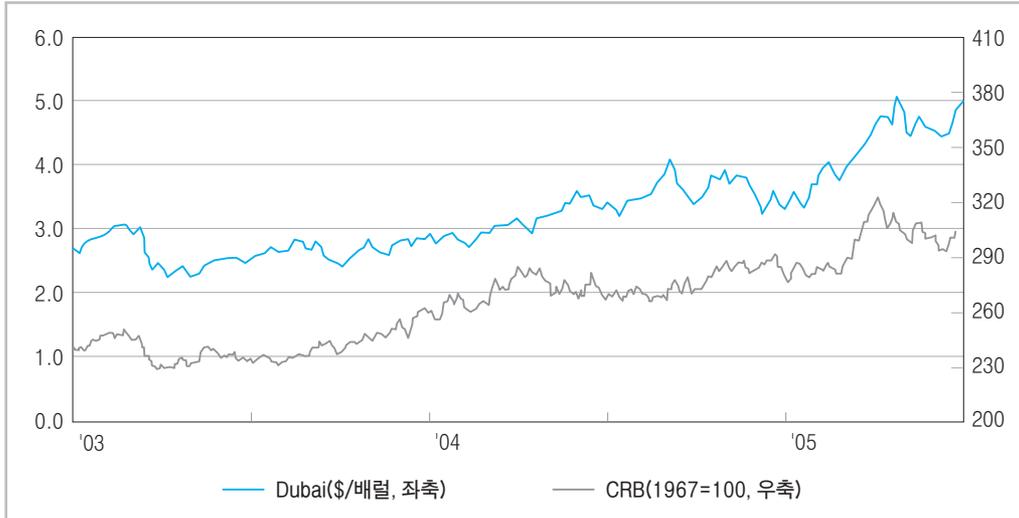
- 2분기는 전통적으로 원유 수요가 적은 계절인데다 연준의장의 유가안정 발언(4. 5)과 미국 원유재고의 증가로 인해 안정
- 5월 중순 이후 엑손모빌의 정유공장의 가동중단소식에 더불어 여름 휴가철 드라이브 시즌 가솔린 수요에 대한 불안의 증폭으로 다시 상승하고 있음

■국제원자재 가격

-CRB 선물가격지수도 3~5월의 하락세에서 상승으로 반전하는 양상

- 최근 유가상승 및 기상여건 악화로 인한 소맥, 옥수수 등 곡물 가격의 수확부진 우려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

<그림 II-6> 국제원자재 가격



<표 II-7> 유가 및 CRB 지수

(\$/배럴, 1967=100)

	2004년		2005년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8일
유가(Dubai) ¹⁾	35.00	34.25	37.90	39.64	45.85	47.21	45.35	49.26
CRB선물지수 ²⁾	290.94	283.90	284.75	305.00	313.57	303.74	297.94	303.63

주: 1) 월평균

2) CRB선물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품목의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지수화한 것으로 1967년=100을 기준으로 한다.

자료: Bloomberg

(2) 전망

1) 하반기중, 고유가 상황 지속 전망

■ 하반기중에도 다음과 같은 요인들로 인해 고유가 기조는 지속될 전망

－중국 등 개도국들의 높은 수요 지속

－산유국들의 공급능력 제한

－계절적인 성수기 진입 등

제3장

국내경제전망

하반기 소비회복으로 5% 성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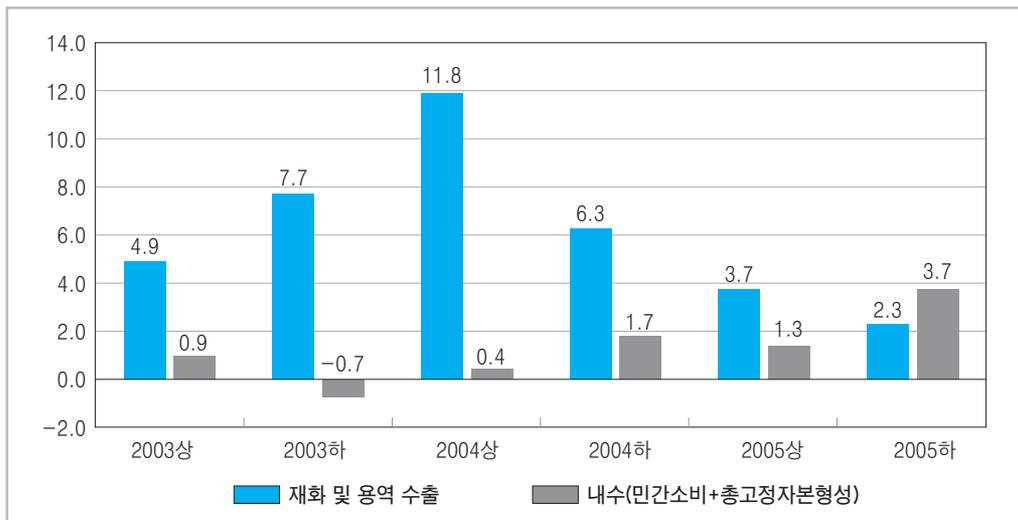
■ 하반기에는 소비회복에 힘입은 내수가 개선되고 수출증가세 둔화가 예상보다 더디게 나타나면서 경기회복세가 가시화되어 연간으로는 4.1%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고유가 등 세계경제 불안요인에도 불구하고 5월까지 실적으로 보면 수출증가세 둔화가 예상보다 더디게 나타나고 있어 올해 성장세에 대한 기여가 더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됨

- 소비개선은 그동안 내수부진으로 특히 불황을 겪었던 서비스 부문 상황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건설 및 운송장비 부문의 약세로 투자증가세가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임

■ 하반기중 내수의 성장기여도(3.7%p)가 높아지면서 하반기 성장률은 상반기의 3.2%에서 5.0%로 높아질 전망

〈그림 III-1〉 반기별 내수와 수출의 성장 기여도



- 내수부진이 지속되면서 실적치가 지난 3년간 정부의 성장목표(약 5%)를 지속적으로 하회하였음. 올해의 경우도 본원 성장 전망은 정부의 당초 목표인 5%보다 약 1%p 낮음
- 일부에서는 이런 추세의 심각성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음. 과연 이런 현황이 심각한가를 가늠하기 위해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함
- 우리 경제가 지난 2년(2003, 2004년)과 올해 정부 목표대로 5% 성장했을 경우와 지난 2년간 실적치와 올해 본원 전망대로 성장했을 경우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올해 본원의 전망대로 성장했을 경우 2005년말 우리나라의 경상 GDP는 약 836.3조원, 개인소득은 1,730만원이 됨
 - 이에 비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5% 성장을 지속했다면 경상 GDP와 개인소득은 약 862조원과 1,784만에 달했을 것임
- 우리 경제 전체로 보아 약 25조원의 추가 소득을 의미함. 올해 정부 일반예산의 20%가 넘는 금액

원화절상에 힘 입어 물가증가세 안정

- 전반적인 총수요압력이 크지 않은 가운데 환율절상의 영향으로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2%에 머물 전망
- 2004년 초에 비해 15%가량 절상된 원화 환율은 고유가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세를 떨어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올해 상반기 국내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해외 여건은 작년 동기와 유사점이 많음. 하지만 작년에 비해 물가는 훨씬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표 Ⅲ-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반기 중 유가 급등과 원자재가 상승 등 비용측면의 물가상승요인이 크게 나타났음

- 이에 반해 2005년의 경우 수입물가나 생산자물가의 증가세는 현저히 낮음
- <표 Ⅲ-2>의 비교에서 가장 눈에 띄는 차이는 5월 기준으로 작년에 비해 약 15% 정도 평가절상된 원/달러 환율임
- 앞으로 원화 환율 가치가 현재의 수준에 비슷하게 머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추세는 하반기 국내물가를 안정시키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더구나 내수회복세가 2005년이 2004년보다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중 물가안정세는 더 돋보이는 현상

<표 Ⅲ-1> 물가와 환율 추세

	2004년		2005년	
	1월	5월	1월	5월
Dubai油 가격	U\$28.9 (2.9)	U\$34.6 (42.4)	U\$37.9 (31.0)	U\$45.41 (30.9)
CRB선물지수	262.6 (5.7)	277.3 (17.7)	284.8 (8.4)	297.7 (7.4)
수입물가지수	105.3 (7.4)	110.5 (14.6)	104.4 (-0.8)	107.5 (-2.7)
생산자물가지수	104.3 (3.8)	107.4 (6.3)	108.6 (4.1)	109.6 (2.0)
원/달러 환율	1182.2 (0.3)	1176.2 (-1.9)	1038.1 (-12.2)	1002.4 (-14.8)

주: 월 평균, () 안은 전년동월비 증감률, CRB 선물지수는 국제원자재 가격지수

경상수지 흑자, 수출증가세 둔화로 하반기중 86억달러로 축소

- 지속되는 對중국수출의 호조에 힘입어 수출증가세가 예상보다 길게 계속되고 있으나 향후 점차 둔화되며 연간 8%대 초반 증가 전망

- 위안화 절상 가능성 등 대외여건이 하반기에 점차 나빠질 것으로 기대되면서 수출 증가세가 상반기에 비해 가시적으로 낮아져 6%를 하회할 것으로 보임
- 고유가 등 가격요인과 소비회복에 따른 수입증가 등으로 수입증가세는 12%를 상회할 전망
- 수출과 달리 내수증가에 힘입은 수입증가세는 하반기에도 두 자릿수를 보일 전망
- 이런 수출입 추세를 반영하여 경상수지 흑자는 상반기 102억 달러에서 하반기에는 86억 달러로 축소될 전망

장기금리 점진적 상승전망

- 장기시장금리는 상반기 4.3%에서 하반기 4%대 후반으로 점진적으로 오를 전망
- 민간 자금수요 회복세가 아직까지도 뚜렷하지 않고 최근 금리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으나,
- 하반기 자금수요가 점차 증가하며 금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

하반기 원/달러 환율은 1,000원 내외 머물 듯

- EU헌법 국민투표부결과 같은 유로화 불안요인으로 인한 단기 반락에도 불구하고 달러화 약세의 기초적 추세에는 변화가 없을 듯
- 만약 일부 유로화 사용국의 철회 가능성이 제기될 경우 유로화發 외환시장불안이 고조될 수도 있음
- 위안화 환율을 둘러싼 논란의 기본 요인들이 아직도 건재하고 있어 향후 환율 조정이 불가피해 보임

〈표 III -2〉 2005년 국내경제전망

(전년동기비, %, 억 달러)

	2004년	2005년						
	연간	1/4	2/4	3/4	4/4	상반	하반	연간
국내총생산	4.6	2.7	3.8	4.6	5.3	3.2	5.0	4.1
계절조정, 전년기비,%	4.6	0.4	1.7	1.6	1.6	1.7	3.2	4.1
민간소비	-0.5	1.4	3.2	4.2	5.1	2.3	4.7	3.5
설비투자	3.8	3.1	3.5	5.9	7.4	3.4	6.7	5.0
건설투자	1.1	-2.9	-0.4	2.2	4.1	-1.4	3.2	1.1
무형고정자산투자	-1.2	4.8	4.5	5.9	7.1	4.6	6.6	5.7
재화 및 용역 수출	19.7	7.4	6.5	4.9	4.1	6.9	4.5	5.7
재화 및 용역 수입	13.8	5.2	4.9	4.7	3.4	5.1	4.0	4.5
생산자물가	6.1	3.3	2.9	2.6	2.6	3.1	2.6	2.9
소비자물가	3.6	3.1	3.2	3.1	3.2	3.2	3.2	3.2
경상수지	276.1	59.5	42.8	42.5	43.0	102.3	85.5	187.9
상품수지	381.6	92.9	86.7	76.4	65.9	179.6	142.3	321.9
수출	2,577.5	681.8	699.7	680.6	725.3	1,381.5	1,406.0	2,787.5
증가율 (%)	30.6	12.9	8.5	7.6	4.2	10.6	5.8	8.1
수입	2,195.8	588.9	613.0	604.3	659.4	1,201.9	1,263.7	2,465.6
증가율 (%)	25.2	13.8	13.4	13.2	9.2	13.6	11.1	12.3
서비스, 소득 & 이전	-105.5	-33.4	-43.9	-33.8	-22.9	-77.3	-56.7	-134.0
원/달러환율(평균)	1,146.1	1,022.6	1,004.9	1,001.8	998.4	1,013.7	1,000.1	1,006.9
회사채수익률(연%,평균)	4.7	4.4	4.2	4.6	4.9	4.3	4.8	4.6
실업률(%)	3.5	3.9	3.5	3.5	3.4	3.7	3.5	3.6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분기모형

제IV장

경제현안과 정책과제

1. 일본식 장기불황을 막기 위한 투자활성화
2. 거시경제 활력제고와 경제상황 안정화

1. 일본식 장기불황을 막기 위한 투자활성화

(1) 문제제기

■ 내수부진의 골이 2년 이상 지속되는 가운데 올 상반기에도 내수회복 조짐이 제한적이어서 우리 경제의 일본식 장기불황 진입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일본 장기불황의 거시경제 현상적 특징은 민간분야의 소비와 투자의 장기침체와 이를 타개하려고 급증한 공공지출 증대로 인한 국가재정의 극심한 악화임

- 한국의 경우 일본에 비해 수출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높기 때문에 수출호조에 의한 국내경기 부양효과가 일본보다 큼
- 2003년 기준으로 일본경제는 한국의 7.1배이며 GDP 대비 수출의 비중은 각각 11%와 37%임. 이는 일본에서 내수의 비중이 한국에서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의미함
-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이 비교적 호조세를 보였으나 일본과 같이 성장률이 영 (0)%에 그치는 상황이 쉽게 나타나지 않을 것임

- 하지만 이런 경제구조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내수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외여건이 크게 악화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장기불황 진입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함

- 특히 외환위기 이후 내수부진으로 우리의 재정상황이 점차 악화됨에 따라 일본의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고조
- 따라서 내수회복이야말로 장기불황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확실한 예방책임

- 우리나라의 경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올해 초 이후 민간소비는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음. 회복세의 견고성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소비회복세와 더불어 투자가 살아난다면 내수회복세가 공고해질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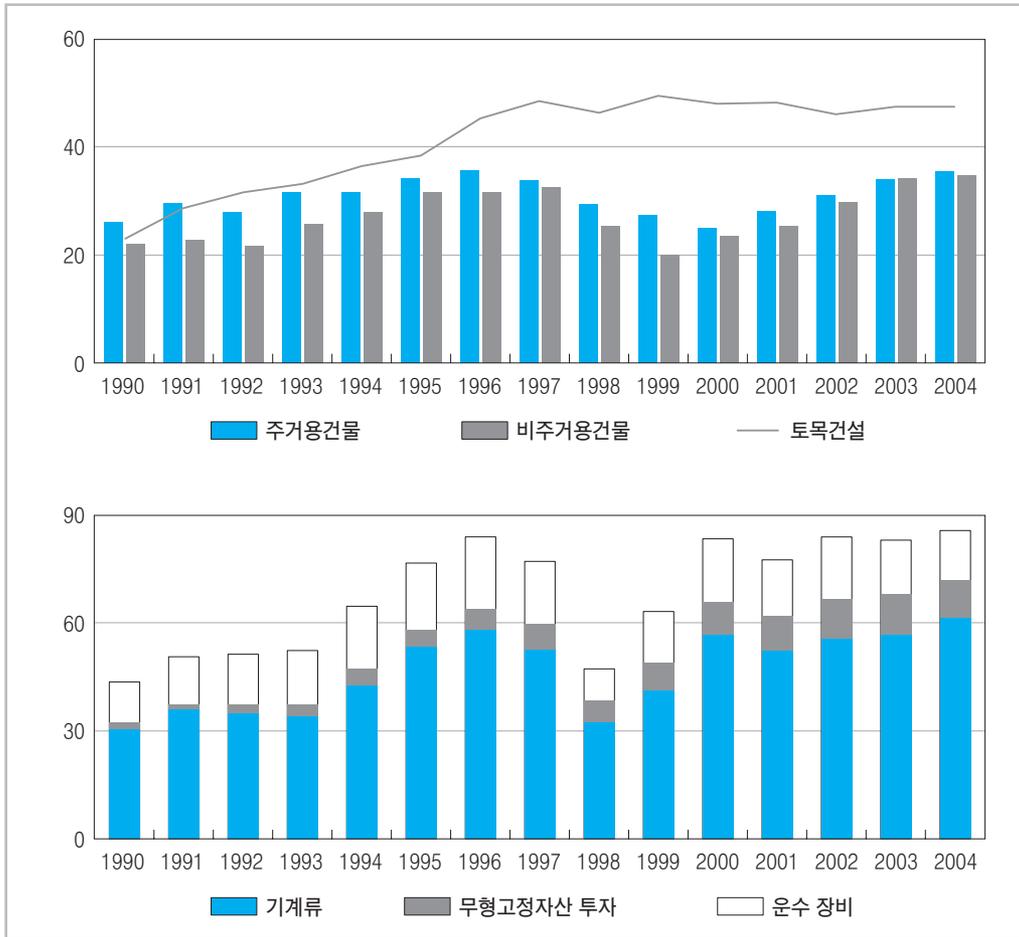
- 이하에서 투자와 내수회복을 위한 과제를 점검하고자 함

(2) 투자 부진의 실상

- 근래 투자 부진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면서 투자활성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음. 소비회복세와 함께 투자회복이 나타난다면 본격적 내수회복을 기대해 볼 수 있음
 - 막연히 기업들의 투자가 부진하다고 속단하기보다 먼저 실제 자료에 바탕을 둔 현황확인이 선행되어야 함
 - <그림 IV-1>은 총 고정자본 형성의 주요항목들의 1990~2004년 기간 동안의 추세를 보여주고 있음
- 향후 실효성 있는 투자증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해해야 할 우리 투자의 몇 가지 특징은 다음과 같음
 - 첫째, 건설투자의 비중이 非건설투자보다 훨씬 크며, 건설투자 중 90년대 후반 이후 토목 건설증가세 둔화가 특이함
 - 둘째, 설비투자 부진은 운송장비 투자 부진에 집중되어 있고 기계류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과 같은 기업 투자는 상대적으로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해 오고 있음

〈그림 IV-1〉 건설, 설비, 무형고정자산 투자추세

(조 원)



주: 2000년도 기준 실질 국내총생산 자료

■그림에서 보듯이 투자가 괄목할 만큼 부진한 부분은 설비투자의 운송장비와 건설투자의 토목건설임

-따라서 투자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분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함

■첫째, 운송장비 투자 부진의 경우 물류산업 현황과 밀접한 관계

- 2001년 기준 한국의 운송수단별 화물운송분담률을 보면 도로분담률이 74%를 상회하면서 해운(20% 미만)과 철도(약 7%)를 훨씬 상회함¹⁾

- 따라서 운송장비의 대부분이 차량임. 그런데 사업용 화물차량 대수의 추세를 보면 1998년까지 약 20만 대를 하회하였으나 그 이후 30만 대를 육박

- 1999년 화물운송업 규제완화를 계기로 1997년과 2001년 사이 사업용화물차량은 55% 증가. 이에 반해 육상운송량은 7.4% 증가에 그쳐 운수업계 불황을 초래
- 이런 불균형이 2003년 화물연대 파업의 배경이 되었음

■둘째, 건설투자의 토목건설 투자의 경우 정체가 길어지고 있는데 정부주도의 SOC 투자가 한계를 드러낸 모습

- 정부 및 공공기관 발주, 기성 금액은 90년대 이후 크게 늘지 않고 있어 긴요한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그 사이 대부분 이루어져 당분간 큰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음

- 통계청의 건설 수주 자료에 의하면 공공분야 토목건설의 전체 수주액(경상가격)은 96년과 97년 약 23.9조와 27.5조를 기록한 후 크게 떨어진 후 완만한 회복세. 2004년의 경우 24.5조 기록
- 공공분야 토목건설의 대표적 분야인 도로교량의 경우 1996~1998년 기간 동안 매년 10조가 넘는 수주가 있던 후 수주액이 줄었는데 2004년의 경우 8.7조에 그쳤음
- 그 다음으로 큰 부분이 고속철, 지하철 공사에 연관된 철도궤도분야이며 2001년 이후 수주액이 3조원을 지속 상회

- 이런 토목건설분야의 추세와 달리 민간이 주 발주자인 공장·창고 건설은 비교적

1) 삼성경제연구소 Issue Paper “물류산업의 현황과 과제”, 2003년 9월 5일

양호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1995년 4.9조까지 달했던 이 분야의 수주는 그 이후 급락하였다가 점차 증가하여 왔음. 2004년에는 수주액이 5.8조를 상회
- 이런 추세는 앞서 살핀 설비 및 무형고정자산 투자 추세와도 관련이 깊는데 그나마 기업들이 공장 등의 시설을 늘리고 있다는 증거임

(3) 투자 회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

■ 건설투자 회복을 위해 재정, 민자동원 사업 등 정부의 노력이 있으나 효과는 제한적일 듯

- 올해 들어 공공부문의 발주증가에 힘입어 건설수주가 호조세를 나타내고 있음. 따라서 향후 건설경기에는 정부 등의 공공부문에 의해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임(〈표 IV-1〉 참조)

- 하지만 앞서 살폈듯이 건설분야의 규모와 다양성을 감안할 때 건설투자 전반에 걸친 빠른 회복세를 기대하기 쉽지 않음
- 특히 참여정부가 부동산경기 과열방지를 통한 가격억제에 대해 첨예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택건설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움

〈표 IV-1〉 최근 건설수주 추이

(전년동월(기)비, 경상, %)

	2004년				2005년				
	4월	3/4	4/4	연간	1/4 ^o	2월	3월 ^o	4월 ^o	
건설수주 ¹⁾	-8.4	-20.8	28.8	-5.3	24.8	-20.0	72.7	29.1	
발주자별	공공	7.1	-7.8	43.2	13.0	22.8	-57.0	177.1	54.6
	민간	-17.5	-28.7	16.9	-13.5	21.4	-4.1	51.7	26.2

주: 1) 합계에는 민자유치사업과 국내외국기관 발주분이 포함되어 있음

자료: 통계청

■ 하반기부터 시행될 BTL 등을 포함한 종합투자계획은 재정지출확대에 따른 구축효과나 재정부담을 줄이고, 정부사업의 민간참여를 유도하여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예상되어 올바른 정책대안인 것으로 판단

- 다만, 금년에 계획된 6.2조원의 민자사업에서 금년 내에 집행될 규모는 1조원 수준에 불과함

- 따라서 내수회복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 BTL의 대상사업을 보다 확대하는 것도 고려해야 함

- 올해부터 본격화되는 '행정도시 건설' 관련 지출도 건설분야 회복에 일조할 전망

■ 정부는 직접적인 재정지출 증대를 통한 노력 외에도 세액 공제, 규제완화 등의 방안을 통해 투자진작을 도모하여 왔음. 이런 노력은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으나 본격적 투자회생에는 역부족

- 앞서 살핀 기업투자 증가, 공장 증설 등과 같이 제한적이거나 정부의 노력이 투자 증가에 일조하였던 것으로 보임

- 하지만, 그동안의 수출호조, 높은 제조업 가동률, 기업들의 여유자금보유 증가 등의 긍정적인 여건을 감안하며 투자진작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판단이 불가피함

- 아울러 정부가 초기에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경제특구 설정을 통한 외자유치와 투자 활성화 방안은 특히 실적이 부진함

- 최근 송도신도시 미국 게일사 외자유치 실패사례 등에서 보듯이 아직까지 외자유치 성과가 별무함

(4) 과제: 기업활동을 보는 정부의 기본적 시각변화

■ 결국 민간자본과 외자유치를 통한 투자활성화가 투자확대의 관건임. 특히 팔목할만한 투자증대를 위해서는 제조업 이외 부문의 대형 프로젝트 투자가 필요함

- 이런 규모와 성격의 투자는 제조업체 확장 이상의 대형 프로젝트가 필요함. 결국 기업도시 건설, 대규모 위탁시설 건설 등과 같은 서비스업분야와 관련된 대형 투자가 이루어져야 함

- 이를 달성하는 방안은 결국 사업추진 능력이 있는 국내 대기업이나 대형 외자유치를 통해서만 가능할 것임

■ 투자활성화를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기업활동을 보는 정부 시각의 큰 변화가 선결되어야 함. 기본적으로 투자를 늘리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쉽게 실행할 수 있게 되어야 함

- 첫째, 기업이 영위하고 하는 사업분야에 대한 각종 진입규제

- 특히 외환위기 직후 업종다양화에 대한 극도로 부정적이 시각이 형성되었고 이는 정부의 각종 對기업 정책에 스며들었음
- 하지만 현실적으로 기존 기업들은 새로운 사업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후보들임. 즉 재원조달이나 경영전문성이라는 측면에서 결정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

- 둘째, 모든 기업간의 필요 자원과 경영전문성 이동에 대한 제약

- 대기업들에 대한 대표적인 제약이 출자총액한도인데 대부분 기업간의 출자에는 경영권 관련 효과와 투자증대 효과가 공존하는 것이 사실
- 정부의 태도는 출자를 이용한 경영권 확장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것임. 하지만 이의 부작용은 투자증대 효과를 아울러 확실히 차단하는 것임
- 일부에서는 출자제한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의견이 있음. 하지만 이

는 가상적으로 출자제한이 없어졌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에 대한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도출된 결론임

- 본원 연구결과는 출자와 투자 사이의 유의한 관계 확인(김현중 · 이인권, 2005)

-앞서 제시된 두 가지 제약이 철폐되었을 때 발생할지 모르는 ‘무리’ 한 결정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이는 시장규율이 최대한 작동하도록 하여 해소할 수 있음

- 과거와 달리 우리나라도 주식 및 채권시장, 신용평가 등을 통한 시장규율체계가 강화되었음. ‘무리’ 한 결정에 대한 시장의 냉정한 평결이 가능해졌음
- 따라서 정부의 역할은 직접 ‘지도’ 하겠다는 가부장적 자세를 탈피하고 시장규율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함

■물류산업의 구조조정과 여건 개선이 운송장비 관련 투자를 증대시킬 수 있음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높은 물류비용에 대한 기업들의 애로호소가 지속되고 있음

-물류산업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는 설비투자의 중요한 축인 운송장비 투자를 늘리는 방안이 될 것임

■이하에서는 기업활동 활성화와 외자유치를 위해 필요한 전반적 경제상황 안정에 필요한 정책과제를 살피고자 함

2. 거시경제 활력제고와 경제상황 안정화

(1) 정책 일관성 확보 및 유효성 증진

- 정부는 경제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해서 분명한 정책기조를 수립한 후 정책기조와 실제정책이 일치하도록 한 후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
 - 대규모 국책사업의 표류에 따른 정책 불확실성의 증대, 정책혼선 증폭, 정책결정에 대한 리더십 실종 등으로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성 저하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
 - 특히, 최근 강남, 분당 등에서 나타난 아파트가격 상승으로 인해 부동산대책의 유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고
 - 진입규제를 강화하는 자영업자 대책을 반복하는 사례 등이 나타나고 있음
 - 정부의 정책혼선을 배제하고 정책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당정간의 충분한 토론과 사전적인 정책조정을 거친 후 정부의 공식입장을 시행부처를 통해 국민에게 전달
- 대내외 위험요인에 대비하고 단기적으로 경기부양적 정책기조의 정책조합(Policy Mix)을 일관성 있게 추진
 - 거시정책은 확장적 기조를 유지하고 미시적으로도 토지구제 개혁 등 규제완화, 국책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임대주택공급 확대 등 부문별 대책을 병행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조합은 올바른 방향인 것으로 판단
 - 다만, 재정지출내역에서 취약계층이나 사회적 약자층 등을 위한 분배위주의 정책기조보다는 성장을 위한 경기부양적 정책기조에 초점을 맞추어, 정부의 강력한 경기부양 의지를 보다 분명하게 표명하여 정부가 의도하는 시장기대를 형성할 필요
 - 중장기적인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정책 수립과 함께 내수침체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인식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

(2) 재정 · 조세 정책: 추경편성과 감세도 고려할 필요

■ 금년 상반기 예산조기집행을 통한 확장적 재정기조 유지는 적절

- 4월까지 실적은 작년 동기간 52.6조원에 비해 13.8조원 증가한 66.4조원으로 최근 내수회복에 적절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됨

〈표 IV-2〉 재정집행 실적

(조원, %)

	2005년					2004년 실적			
	예산	4월말 실적		상반기 계획		4월말		상반기	
총 계	169.9	66.4	(39.1)	100.2	(59.0)	52.6	(33.0)	87.5	(55.0)
예 산	121.5	49.0	(40.4)	72.3	(59.5)	41.0	(34.4)	65.2	(54.7)
기 금	23.8	7.7	(32.3)	12.6	(53.1)	4.9	(23.2)	10.2	(48.9)
공기업	24.6	9.7	(39.4)	15.3	(62.0)	6.7	(35.5)	12.1	(64.0)

주: () 안은 예산액 대비 집행진도율, 이하 동일
자료: 기획예산처

- 하지만,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용상황 개선 미흡

- 정부가 4월까지 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연간계획 46.2만 명의 67.8%인 31.5만 명(전년동기 대비 7.8만 명 증가)에게 교육·훈련기회와 사회적 일자리 등을 제공하여 구직난 완화에 기여했음에도,
- 4월 실업률과 청년실업률은 3.6%와 7.8%로 작년 4월 3.4%와 7.6%에 비해 높은 수준임. 고용부진의 심각성을 반영함

〈표 IV-3〉 정부의 일자리 지원 실적

(만 명, %)

	2005년					2004년 실적			
	연간	4월말 실적	상반기 계획		4월말	상반기			
일자리 지원	46.2	31.5	(67.8)	37.7	(81.2)	23.7	(66.9)	28.3	(79.5)
· 청년실업대책	19.9	10.9	(53.9)	15.8	(78.7)	9.1	(63.8)	12.1	(84.4)
· 사회적 일자리 및 취약계층 지원	20.9	17.4	(83.4)	18.2	(86.8)	11.6	(73.7)	12.6	(80.4)
· 공무원 등 채용	5.4	3.2	(59.4)	3.7	(68.6)	3.1	(66.9)	3.6	(64.4)

자료: 기획예산처

■ 재정지출정책은 중기재정적 시각에서 유연하게 운영하고, 하반기에도 적자재정을 감수하여 추경편성을 포함한 확장적 재정지출 지속

- 그동안의 노력이 제한적이거나 내수회복과 고용부진 완화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 하반기 경기회복이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의 상반기 조기지출에 따라 발생할 하반기 재원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추경예산 편성도 고려해야 함

• 현재 추세로 보면 올 하반기 가용예산액은 작년 하반기에 비해 1.9조원 감소할 것으로 보임

〈표 IV-4〉 2004년 및 2005년 재정지출 규모 비교

(조원, %)

	상반기	하반기	연간 계획
2004년(A)	87.5조원(55.0%)	71.6조원(45.0%)	159.1조원
2005년(B)	100.2조원(59.0%)	69.7조원(41.0%)	169.9조원
B - A	12.7조원	-1.9조원	10.8조원

자료: 기획예산처

-추경편성시 내역은 일시적인 경기부양 항목보다 성장잠재력 확충 등에 도움을 주는 연구개발투자나 SOC투자 등에 중점적으로 편성하되, 연내 집행이 가능한 항목을 우선적으로 고려

- 최근 IMF도 적정한(modest) 추경예산을 편성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유로의 경우에도 협약에 따라 각국의 재정적자를 경기여건에 따라 국내총생산의 3%까지 허용하고 있음(Resolution of the European Council on the Stability and Growth Pact, Amsterdam, 1997년 6월 17일)

■ 조세정책의 경우, 큰 폭의 소득증가 어려운 상황에서 감세정책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가처분소득 증가를 통해 소비회복 도모

- 최근의 감세효과 분석에 의하면, 법인세 인하가 경기회복에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추정*

*허찬국 · 이연호 · 김창배, <한국경제 분기 거시모형: KERI-2005>

- 작년에 폐지되지 않은 특소세 대상품목과 소득세율의 인하 폭을 각각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범위를 확대하고 기한도 추가로 연장할 필요

- 감세로 인한 부족한 세금을 보충하기 위해 소득과약이 미흡한 계층에 대한 세원발굴에 노력해야 함

- 우리나라 과세자 비율이 약 58% 수준임을 고려할 때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소득세 과세미달점의 하향조정

(3) 통화 및 환율 정책: 저금리기조 유지

■ 통화정책의 경우에도, 총수요에 의한 물가상승압력이 가시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저금리기조를 유지할 필요

- 금년 상반기 국내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금리기조의 유지는 바람직

하다고 판단됨

- 만약 하반기에 경기가 보다 악화되고 원화절상속도가 빠를 경우 추가적인 금리인하도 고려할 수 있음
- 동시에 향후 경기회복세와 총수요압력에 따른 물가상승이 가시화될 경우 금리 인상 고려해야
 - 특히 최근 국내외 금리 차의 역전현상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회복세가 뚜렷해지면 점진적인 금리인상도 고려할 필요
- 환율정책의 경우, 기본적으로 외환시장의 수급여건에 따라 달러화에 대한 원화가치의 변동을 용인하되, 다만 급격한 변동을 완화하는 수준에서 제한적인 환율개입(Smoothing Operation) 요망
- 위안화 절상 여부와 관련된 시나리오별 대책을 마련하고, 특히 외환리스크 관리가 미흡한 중소기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
- 외환보유고 등을 동원한 직접적인 시장개입보다는 외채상환 규모나 시기를 조절하는 등의 간접적인 방법 활용
- 원화가치 상승에 대해 대처방안의 일환으로
 - 단기적으로는 수출금융을 강화하는 동시에 달러화의 급락을 완화
 - 장기적으로는 우리 기업들이 환율만 쳐다보는 천수답식 경영이 아니라 수출제품의 비가격경쟁력을 강화할 것을 요망

(4) 노사정책 및 대·중소기업 협력: 동반자적 노력 필요

■ 정부와 정치권은 노사문제 등 이해집단의 갈등 해소에 있어 불필요한 개입이나 소모적인 정치적 쟁점화를 지양하고, 노사정의 동반자적 노력과 법치주의에 기초한 해결 도모

- 노사분규에서 참여정부가 보여준 중립적인 입장은 시장의 안정과 발전, 법치주의 확립 등에 긍정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판단

- 기업은 고용안정, 불법노동행위 추방, 근로복지 증진, 일자리 창출, 경력단절 상태의 근로자 재고용 및 재취업프로그램 확대 등에 주력
- 근로자는 불법파업행위 추방, 노동생산성 향상, 자기개발, 무리한 근로조건요구 자제, 노동시장의 유연성 강화 등에 노력
- 노조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과도한 정규직의 근로조건을 완화하고 기업도 가능한 최대의 노력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노력
- '심각한 경영 악화' 상태에서만 적용되는 정리해고제를 '생산성 격차'에 기초한 실질적인 정리해고제로 도입하는 방안 추진

■ 기업간 양극화 해소를 위해 대기업-중소기업간 상생관계를 증진할 필요

- 대기업은 협력회사의 설비투자 및 기술개발 지원, 임직원 양성 및 경영개선 지원 등에 노력하고 중소협력회사는 양질의 제품을 안정적으로 납품하는 등 모기업-협력기업간 '윈-윈(Win-Win) 전략' 추진

-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성과공유제도 구축을 통한 시너지 창출이 바람직함

- 공동 기술 및 부품개발에 노력하고 원가절감 및 품질향상 등을 통해 얻어진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를 확산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기업의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대기업의 기술협력을 가속화하고, 수익공유제나 위험공유제 등 대-중소기업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유인구조를 구축
- 모기업의 중소협력기업에 대한 부분자본참여를 허용하는 것도 고려

(5) 부동산 정책: 세금보다 공급증대

■ 자산가격 버블 붕괴가 일본 장기불황진입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중요한 자산인 부동산의 가격안정이 중요하나 그동안 정부의 노력이 역효과를 자아내는 모습

■ 현재의 부동산가격 급등 원인은 복합적인 것으로 보임

— 첫째, 주택시장 내부의 만연된 국지적 수급불균형의 문제

- 핵가족화, 1인가구화 등 주거패턴의 변화로 인해 주택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 생활수준 향상으로 중·대형평형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의 공급 부족으로 중대형평형 아파트 가격급등
- 또한 주거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강남지역의 수요는 꾸준하지만, 주택공급은 제한되어 있음. 이에 따른 강남지역 재건축가격 급등

— 둘째, 예상 외의 부작용과 기대를 만들어낸 정부정책

- 판교신도시 건설계획에 따른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로 분당, 용인지역 가격급등
- 강남 부동산가격을 기필코 잡겠다는 식의 발언으로 시장을 자극시킴 (불합리한 기대를 조장)
- 행정수도이전 등으로 인한 개발호재기대

— 셋째,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시현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

—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함

■ 거래활성화를 통한 시장의 가격안정화 기능을 최대한 활용

— 현재의 가격급등 양상은 거래는 없으면서 호가만 높아진 경향이 짙으므로 거래활성

화를 통한 가격안정을 도모

- 거래세 부담의 완화, 예컨대 취득·등록세의 대폭적 인하조정, 양도소득에 대한 중과세를 한시적으로 연기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

-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연기는 정부가 일관되게 주장해 온 ‘개발이익 환수’를 포기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어 일면 추진하기 어려워 보이지만, 시장기능 회복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완화시켜 주는 정책적 지혜가 필요함

■ 주택공급을 대폭적으로 확대하여 수급불균형 요인을 완화

- 초과수요가 있는 지역, 또는 이에 대체가능한 지역에 대폭적인 주택공급으로 초과수요의 문제를 해결

- 80년대 후반의 부동산가격 급등문제는 90년대 초반 주택200만호건설 정책으로 풀 경험이 있음
- 수요가 있는 지역에, 수요가 있는 평형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 장기적으로 충분한 주택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사전에 미리 고지하여 시장의 불안요인을 제거

■ 정책추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수요조절 정책을 병행

- 교육, 교통, 환경 등 주거여건의 개선 등을 통해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수요를 분산

- 강북뉴타운 개발사업 등을 조속히 추진

■ 부동산가격 급등에 대해 조세정책은 적절하지 않은 정책이므로 이를 통한 시장안정정책은 지양

- 과거 30여 년 이상 부동산가격 급등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어김없이 조세정책으로 대응하고는 했지만,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는 것은 조세정책이 부동산 시장의 대응 정책으로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함
- 결국 부동산가격 급등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채 조세논리에 맞지 않는 세제만 만들었음

〈부록〉

주요 경제통계

경제성장률 · 소비 · 투자

연 월	경제성장률		1인당	소비		투자		
	GDP	제조업	GNI	민간	정부	총고정투자	설비	건설
	전년동기 대비(%)		US \$	전년동기 대비(%)				
2002년	7.0	7.6	11,499	7.9	6.0	6.6	7.5	5.3
2003년	3.1	5.5	12,720	-1.2	3.8	4.0	-1.2	7.9
2004년	4.6	11.4	14,162	-0.5	3.0	1.9	3.8	1.1
2002년	1/4	6.5	5.2	9.8	7.6	7.7	3.3	11.0
	2/4	7.0	6.2	8.7	7.3	7.3	8.0	6.0
	3/4	6.8	7.4	7.8	5.3	2.4	9.1	-2.4
	4/4	7.5	11.4	5.5	4.2	9.1	9.6	8.4
2003년	1/4	3.7	5.1	0.3	4.0	4.7	2.3	7.7
	2/4	2.2	2.6	-1.8	3.7	4.2	-0.4	7.9
	3/4	2.4	3.3	-1.9	3.5	2.7	-4.6	7.7
	4/4	3.9	8.0	-2.2	3.5	4.3	-2.0	8.3
2004년	1/4	5.3	12.2	-1.3	3.0	2.2	-0.3	4.9
	2/4	5.5	13.7	-0.5	4.2	4.3	6.2	3.6
	3/4	4.7	12.0	-0.8	2.9	3.0	6.8	1.3
	4/4	3.3	8.0	0.6	1.9	-1.2	2.5	-3.4
2005년	1/4	2.7	5.3	1.4	3.2	0.1	3.1	-2.9

무역 · 국제수지

연 월	무 역				국 제 수 지		외환 보유액 ¹⁾	대미환율
	수출(FOB)		수입(CIF)		상품	경상	(기말)	(기말)
	억 달러	전년동기 대비(%)	억 달러	전년동기 대비(%)	억 달러		원/달러	
2002년	1,624.7	8.0	1,521.3	7.8	147.8	53.9	1,214.1	1,186.2
2003년	1,938.2	19.3	1,788.3	17.6	219.5	119.5	1,553.5	1,192.6
2004년	2,538.4	31.0	2,244.6	25.5	381.6	276.1	1,990.7	1,035.1
2004년 1월	189.9	32.6	162.1	11.8	29.8	23.4	1,574.5	1,174.9
2월	191.4	43.5	174.7	26.1	30.0	28.9	1,630.1	1,176.5
3월	211.8	37.7	191.2	20.5	26.3	9.1	1,635.6	1,153.6
4월	214.8	36.7	188.3	27.6	33.8	11.4	1,636.4	1,167.7
5월	208.3	42.0	179.0	32.3	37.6	37.1	1,665.4	1,165.7
6월	216.6	38.3	185.4	38.1	33.4	22.2	1,670.3	1,152.5
7월	210.0	36.1	183.9	23.4	41.5	32.3	1,680.1	1,170.3
8월	198.0	28.8	181.2	33.8	18.5	10.6	1,704.9	1,153.8
9월	208.3	22.4	181.9	25.2	36.9	28.6	1,744.4	1,151.8
10월	226.6	19.7	204.1	23.4	29.1	25.0	1,783.8	1,119.6
11월	230.8	26.5	203.1	28.9	35.4	29.4	1,926.0	1,048.2
12월	232.0	17.6	209.7	19.0	28.3	20.0	1,990.7	1,035.1
2005년 1월	224.3	18.1	194.0	19.7	44.9	38.7	1,997.0	1,025.6
2월	204.0	6.6	183.5	5.0	16.9	9.7	2,021.6	1,006.0
3월	239.8	13.2	226.3	18.3	31.1	11.1	2,054.4	1,015.5
4월	229.8	6.9	211.8	12.5	24.0	-9.1	2,063.8	997.1
5월	233.0	11.8	211.9	18.4			2,061.0	1,007.7

주: 1) 가용외환보유액 기준

물가 · 실업 · 이자율

연 월	물가 ²⁾		실업률 (계절조정)	제조업 명목임금	통화 ³⁾		회사채 수익률	주가지수 80,14=100
	생산자	소비자			신M2	M3		
	전년동기 대비(%)		(%)	전년동기 대비(%)		연%, 평균	기간평균	
2002년	-0.3(2.3)	2.7(3.7)	3.1	11.9	11.5	12.9	6.59	757.0
2003년	2.2(3.1)	3.6(3.4)	3.4	8.7	7.9	8.8	5.43	679.8
2004년	6.1(5.3)	3.6(3.0)	3.5					
2004년 1월	3.8(1.4)	3.4(0.6)	3.7(3.3)	-0.3	2.4	4.9	5.67	845.5
2월	4.5(2.6)	3.3(1.1)	3.9(3.3)	11.5	2.6	5.1	5.63	867.5
3월	4.4(3.6)	3.1(2.1)	3.8(3.4)	9.2	2.7	5.3	5.37	875.6
4월	5.5(4.1)	3.3(2.1)	3.4(3.4)	8.1	3.1	5.4	5.14	862.8
5월	6.3(4.4)	3.3(2.0)	3.4(3.5)	8.8	3.9	5.9	5.07	798.8
6월	6.8(4.2)	3.6(2.0)	3.2(3.5)	7.0	4.4	6.1	4.91	771.6
7월	7.0(4.7)	4.4(2.6)	3.5(3.6)	13.9	4.6	5.9	4.77	746.1
8월	7.5(5.6)	4.8(3.5)	3.5(3.6)	3.5	4.9	6.3	4.38	770.3
9월	7.5(6.0)	3.9(3.5)	3.2(3.5)	13.8	5.4	6.3	4.10	835.9
10월	7.3(6.1)	3.8(3.5)	3.3(3.5)	6.8	5.9	6.6	4.01	849.1
11월	6.8(6.1)	3.3(2.9)	3.3(3.4)	8.0	4.9	5.9	3.86	863.1
12월	5.3(5.3)	3.0(3.0)	3.7(3.5)	22.7	4.9	6.3	3.73	873.1
2005년 1월	4.1(0.2)	3.1(0.7)	3.9(3.6)	-4.8	5.3	6.1	4.11	903.4
2월	3.2(0.6)	3.3(1.3)	4.0(3.5)	27.9	5.3	5.8	4.63	964.5
3월	2.7(1.0)	3.1(2.1)	3.9(3.5)		5.3	5.3	4.48	988.2
4월	2.9(1.7)	3.1(2.2)	3.6(3.6)		5.5	5.4	4.28	955.4
5월	2.0(1.1)	3.1(2.0)					4.12	939.0

주: 2) () 안은 전년말월 대비 증가율 3) 평잔기준

산업활동

연 월	산업생산		수요관련지표							
	전산업	평균 가동률(%)	도소매 판매액	소비재 출하 ⁴⁾	국내기계 수주 ⁵⁾	설비투자 추계	건설 수주	건설기성		
								공공	민간	
전년동기 대비(%)										
2001년	0.7	75.3	5.7	2.8	-1.0	-9.1	22.1	10.0	4.4	14.6
2002년	8.0	78.4	8.6	8.1	21.0	8.4	33.0	11.2	-8.1	24.5
2003년	5.0	78.3	-2.8	-5.9	-8.7	-2.3	19.3	16.6	10.7	20.6
2004년	10.4	80.3	-2.0	-2.4	6.8	1.4	-5.3	11.0	5.3	14.4
2004년 1월	4.7	80.4	-2.8	-7.3	13.1	0.0	-6.1	13.1	5.3	18.2
2월	17.4	83.0	2.1	2.0	13.6	2.6	-20.2	12.0	17.0	11.8
3월	12.1	80.6	0.5	1.8	31.5	-7.1	0.0	18.3	18.1	19.2
4월	11.4	80.5	-0.3	0.2	19.0	-1.5	-8.4	17.6	15.5	19.2
5월	13.9	80.9	-2.8	-3.7	19.6	3.7	-18.6	11.8	7.5	14.1
6월	12.9	79.8	1.2	-1.0	18.9	7.5	-34.7	8.2	5.7	9.7
7월	13.5	79.1	-0.3	-2.4	-5.6	4.0	0.0	11.7	1.4	17.2
8월	10.9	78.8	-2.2	-2.7	-5.5	6.0	-36.4	12.9	9.6	15.0
9월	10.6	79.8	-0.8	-2.9	-8.4	1.5	-24.7	19.7	14.4	22.9
10월	5.8	79.7	-2.5	-5.5	-7.1	-0.5	33.1	9.0	-3.6	16.6
11월	9.9	81.8	-1.4	-0.3	1.6	3.0	4.3	5.8	0.5	8.3
12월	4.6	79.7	-0.1	-6.0	-9.9	-1.8	39.7	-0.2	-10.3	5.7
2005년 1월	14.2	81.9	-2.9	-0.6	0.8	16.0	14.9	4.9	-0.4	7.1
2월	-7.3	77.2	-1.6	-11.2	-18.7	-3.5	-20.0	-2.4	-0.9	-2.9
3월	4.9	80.9	1.4	-3.3	-3.2	1.4	72.7	5.3	-1.1	8.1
4월	3.8	78.9	1.2	-3.7	-10.3	-0.3	29.1	8.3	-0.2	12.7

주: 4) 내수용 5) 내수용, 선박 제외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1판1쇄 인쇄/2005년 6월 19일

1판1쇄 발행/2005년 6월 22일

발행처/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인/노성태

편집인/허찬국

등록번호/제318-1982-000003호

(150-756)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8-1 전경련회관
전화(대표)3771-0001 (직통) 3771-0057 팩시밀리 785-0270~1

<http://www.keri.org/>

© 한국경제연구원, 2005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3771-0057